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210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9월 1일 월 간

【1】



커버 스토리 7면

가을학기 장학금 수여 1억7천4백만원

관악춘추

서울대총동창회 산하의 재단법인 冠岳會(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2일 모두 87명에게 8천4백62만4천5백원의 95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상과대학, 법과대학, 간호대학등 13개 단과대학동창회도 각각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로써 장학금 지급액은 총 1억7천4백20만8천5백원에 달했으며 수혜자 총인원이 무려 2백21명에 이르렀다. 서울대 동문들의 장학사업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장학사업의 활성화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일이 결

코 있어서는 안될 터이다. 우수한 인재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인적자원의 낭비가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특히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장학사업 활성화

데 그 경쟁은 사람, 특히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국가에서는 전문화된 우수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의 요체일 수 밖에 없으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많이 길러내는 일이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그런 뜻에서 서울대총동창회 및 단과대학별 장학사업이 갈수록 활성화 되어야할 듯싶다. 물론 대학 자체의 기금마련과 복지확충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원과정은 본질적으로 학생이 등록금 없이 공부하고 일부 생활비도 보조받는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정부예산이든 발전기금이든 장학금이든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 단지 대학도 합리적 경영을 통해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도 선배 동문들의 장학금 지급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덕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林)

북미 5개지부 단합다져 회장단 순방으로 동문들 사기 충전



LA지부동창회 간담회에서(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李丙俊재미동창회장, 閔丙峻사대동창회장, 본회 金在淳회장, 張翼龍부회장)

본회 金在淳회장, 張翼龍부회장, 閔丙峻사대동창회장, 李世震사무처장등으로 구성된 순방단은 李丙俊재미동창회장을 비롯한 각 지부동창회 초청으로 7월12일부터 28일까지 북미주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이번 순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부활성화 제고에 기여한 것은 물론 모교와 동창회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A지부

모교사업 지원키로

LA支部同窓會(회장 全熙澤·64년 醫大卒)는 지난 7월13일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지부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순방단과 同會 吳在仁고문, 李鍾成K-TAN TV 사장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임을 강조하고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기자』고 말했다. 李世震사무처장은 정기총회, 등산대회등 총동창회 회무보고에 이어 개교50주년 기념 준비계획을 소개하고 해외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지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기부금 입학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同會는 앞으로 모교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카고지부

개교50주 행사 논의

시카고支部同窓會(회장 朴泳圭·61년 農大卒)는 지난 7월 16일 「쌍용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순방단과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환담했다.

同會는 내년에 있을 예정인 개교50주년 행사를 위한 심포

지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송부해줄 것을 본회에 요청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동문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워싱턴DC지부

모교상징스티커제작

워싱턴DC支部同窓會(회장 李鍾國·58년 醫大卒)는 지난 7월18일 「우래옥」에서 朴允洙초대재미동창회장과 순방단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교 심볼마크가 새겨진 스티커를 제작하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해외지부 회장단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부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同會는 개교 50주년 행사에 대한 홍보안내 및 모교발전기금 모금 요청서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5면에 계속)

미술작품

李鍾成 作



「장미」 캔버스에 유채 1994, 60.5cm x 50.5cm

(작가 약력)

△1930년 서울출생
△1949년 제1회 국전 입선
△1950년 경기고卒
△1958년 서울대 상대卒
△1969년 서울대 신문대학원(제1기)수료
△현재 KTAN-TV사장

(작품평)

뜬앞에 함초롬히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흰장미들...

그리고 그 꿈을 피워 내려는 몸짓으로, 위를 향해 머리를 든 봉우리들을 대하며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숨가쁜 시공간에 서서 삶의 애뜻함을 되새겨 본다.

작가는 장미라는 소재의 동기만 제시했을 뿐 그 개념의 완성은 이 작품을 대하는 모든이들이 언젠가 체험했던 자신만의 정감을 일깨워 완성시키리라.

河東哲(65년 美大卒·모교 교수)미술평론가

본회는 앞으로 동문여러분의 미술작품(회화, 조각등)을 계속적으로 기증받아 전시회를 개최, 판매수익금으로 모교의 장학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뜻있고 관심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라비니아파크에서 열린 「시카고지부음악회」에서

(3면에 이어)

뉴욕지부

총동창회와 유대 강화

뉴욕支部同窓會(회장 吳仁錫·62년 法大卒)는 지난 7월21일 「대원각」에서 순방단을 비롯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뜻회장은 회무보고를 통해 「뉴욕지부에는 16개 단과대학과 5개 대학원 출신의 1천8백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소개하고 「총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주본부와 협력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동창회와 모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 문

화강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본회에 요청했다.

한편 22일에는 NEW JERSEY GREAT GORGE 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를 비롯한 법대동창회와 李典九전임회장의 협찬으로 꾸민 경품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결과 鄭基演(71년 文理大卒)동문이 개인우승을 거뒀고 단체우승은 상대동창회가 차지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해외동문 참여 유도

캐나다온타리오支部同窓會(운영위원장 李京姬·61년 文

理大卒)는 7월25일 「마사루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순방단을 비롯해 金明奎한국일보 토론토지사장, 金孝차기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환담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지부순방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李世震사무처장은 동창회 회무보고를 마친 후 개교50주년 행사안내 및 해외동문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同會 李京姬위원장은 현황보고에서 「온타리오지부는 지난 72년 창립됐으며 현재 3백5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志)



본회 金在淳회장이 「뉴욕지부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상대동창회에 우승컵을 전달했다.

동창회의 세계화를 꿈꾸며

-본회 李世震사무처장

이번 순방은 일정 자체가 모두 뜻깊고 즐거운 것이었지만 그중에서도 7월15일 열렸던 「시카고지부음악회」는 유독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라비니아파크에서 열린 음악회를 통해 2백여명의 동문가족들과 하나가 돼 우정을 나누고 모교와 조국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지부를 방문해 朴健雨주미대사 초청만찬에 참석했을 때에도 개교50주년 행사로 「열린음악회」를 유치

「소양강 처녀」를 멋드러지게 불러 동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21일 뉴욕지부 간담회에서는 88년 성악과를 졸업한 吳垠際동문이 순방팀을 환영하는 뜻에서 「그리운 금강산」「가고파」등을 선사해 주었다. 사실 계속되는 회의와 업무협의로 지친 적도 있었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고 보면 피곤함이 싹 가시곤 했다. 특히 미대출신이라는 것만 밝힌 뉴욕지부의 어떤 동문부



워싱턴지부동창회 간담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적극 추진해 불만하다고 생각한다.

17일 워싱턴지부와 23일 뉴욕지부를 방문했을 때는 「상대동창회」와 「사대동창회」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순방기간동안 간담회를 비롯한 이런 자리를 통해 순방단과 해외지부 관계자는 모교 발전방안과 지부 활성화 방안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서울대 마크가 찍힌 스티커나 넥타이핀, 넥타이등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13일 LA지부간담회에서는 李敏燮(前문체부장관)동문이

부는 모교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선뜻 약속해 해외동문들의 모교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순방단은 일정중에 21개 대학동창회의 모임인 「뉴욕지구 한국대학동문연합회」초청조찬에 참석했다. 교민친목 모임의 하나인 이 단체 회원들은 교민2세들의 결혼까지 서로 주선할 정도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다.

개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번 순방이 서울대동문 개개인은 훌륭하나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을 불식시키고 국내외에 있는 동문을 하나로 연결해 모교와 동창회가 세계화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헤이그 李 僑열사기념관 개관 金在淳회장, 홍상제막식 주관



8월5일 李 僑열사 기념관 개관 및 홍상제막식이 거행됐다.

지난 8월5일 네덜란드 Wageningen에 위치한 기념관에서 李 僑열사기념관 개관 및 홍상제막식이 개최됐다.

본회 金在淳회장과 하멜 카네기재단 사무총장의 축사에 이어 기념관 테이프커팅 및 홍상제막, 기념관 관람순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柳星天여

사등 李 僑열사유족과 현지의 동문, 동문가족 및 유럽동포들이 참석했으며 행사후에는 一醒 李 僑열사 묘지지를 참배했다.

金회장은 『이곳이 세계평화와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온세계 사람들의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멀리 타국땅에 세워지는 李 僑열사 기념관에 대한 감회를 새롭게 했다.

한편 본 행사전에는 광복50주년 경축식 및 一醒 李 僑열사 88주기 추모식이 Nieuwe Kerk에서 개최됐다.

네덜란드지부 활성화 간담회 金회장 “거시적 안목으로 조국을 바라봅시다”

네덜란드支部同窓會(회장 林基滿)는 지난 8월2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OCEAN PARADISE에서 지부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崔秉烈부회장, 白文基감사, 李炯均본보는설위원부와 同會 林회장, 李基恒·柳正夏부회장, 梁承錫총무, 姜

淳久·金確植·朴健雨동문이 참석했으며 지부회원소개 및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환담이 있었다.

林회장은 『회장단의 순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럽한민족제전과 서울대 21만 동문의 정성이 담긴 一醒 李 僑열사 홍상제막식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하고 이날 행사를 계

기로 지부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본회 金회장은 『조국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서울대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하고 모교 개교50주년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泳)

헤이그서 광복50주 기쁨을 맛보다



네덜란드 풍차촌인 「잔세스칸스」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순방단은 지난 8월1일부터 7일까지 유럽한민족제전과 一醒 李 僑열사 홍상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유럽순방길에 올랐다.

유럽순방길에서 얻은 성과와 그동안의 일정, 그곳 동창회지부의 소식을 회보 지면을 통해 여러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대한항공 趙重勳회장을 비롯해 본회 순방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네덜란드 거주 동문과 동문가족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8월1일 10시20분 KE911편으로 출국한 일행은 19시가 돼서야 암스텔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 암스텔담에 도착한 인원으로는 본회 金在淳회장과 崔秉烈부회장, 白文基감사, 李炯均본보는설위원부와 그곳에서 합류한 모교 慎範廈교수부부, 鄭成培교수였다.

이튿날인 8월2일에는 姜淳久(76년 社會大卒·한일개발지사장)동문의 부인 홍미자(네덜란드 한인학교교사)씨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주요명소를 관람했다. 마두로담, 평화궁, 스페넨겐해변과 고흐미술관까지, 동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아름다운 풍경들이었다.

8월3일 오후에는 駐네덜란드 林寅浩대사의 초청만찬이 「고려정」에서 있었다. 林대사는 육사출신이지만 부인인 金敬子(67년 師大卒)씨가 동문인 까닭에 서울대가족임을 확인(?)받은 林대사는 순방단을 위해 극진한 배려와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金회장은 동문들의 이름으로 총동창회 기념시계와 지갑을 전달했다.

광복50주년 경축식 및 李 僑열사 88주기 추모식이 거행되기 전날인 8월4일에는 「암스텔담자유대학」에서 「광복50주년 경축 기념강연회」가 개최됐다.

본 순방의 주목적이었던 광복50주년 경축 및 一醒 李 僑열사 추모식과 一醒 李 僑열사기념관 개관 및 홍상제막식을 성공리에 마친 본회 순방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국가보훈처 黃昌平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헤이그 「BER AIR 호텔」에서 개최된 만찬에서는 본회 金在淳회장과 홍상제막식에 힘쓴 白文基감사에 대한 감사패전달이 있었다.

(본회 李世震사무처장)

李 僑열사의 홍상을 기증하며

(축사 요지)

존경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하버만시장님, 국제사법재판소 용크만소장님, 카네기재단 하멜사무총장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신 국가보훈처의 黃昌平장관님과 李 僑열사의 유가족을 대표하여 오신 열사의 외손녀 柳星天여사, 李 僑열사 기념사업회 李善俊회장님과 독립기념관 崔昌圭관장님, 상동교회의 李東鶴목사님과 全經聯의 黃正顯상근부회장님, 駐네덜란드 林寅浩대사님과 이곳 한인회 최태순회장님.

그리고 한층 감격스러운 것은 6·25 한국전란에 참전하셨던 네덜란드의 참전용사 여러분.

그밖에도 이 역사적이고도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신 독일, 프랑스, 스페인등 유럽인접국에서 오신 경애하는 동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은 1907년 韓末 고종황제의 밀지를 가지고 이곳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李相高, 李瑋鍾 志士와 더불어 李 僑열사가 묵었던 旅館 앞입니다. 이곳 헤이그시는 지구촌의 법과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명예로운 도시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곳 헤이그시는 한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숭고한 녀이 살아 숨쉬어 왔던 곳입니다.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있는 민족의 자존이 한때 國際風雲의 불운 속에서 일제에 의하여 수모를 당하게 되고 國恥의 설움을 겪게 되었지만 李 僑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뜨거운 피가 헛되지 않아 이제서야 새로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 꽃이 피는 나라를 만들어낸 토양이기도 합니다.

「賢者」는 남의 경험에서 배우며 보통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李 僑열사의 영전에서 인간 李 僑열선생을, 또 우리들의 조국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엄숙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사 가운데 열사의 홍상제막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 홍상은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21만 동문의 이름으로 獻呈하는 것입니다. 열사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모태라고 할 구한말의 한성 법판양성소 제1회 졸업생입니다. 이 맥락에서 금년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법학교육 1백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열사의 홍상을 조각, 제작하신 분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신 白文基박사이며 또한 대한항공 趙重勳회장의 도움이 컸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이 역사적이고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李 僑아카데미의 李基恒원장과 그의 부인 이신 송창주여사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치하드립니다.

1995년 8월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커버스토리

2백21명이 장학금 혜택받아 鄭부회장 “진정한 엘리트로 성장하자” 당부

본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지난 8월 95년도 2학기 장학금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장학금은 본회(재단법인 관악회)가 87명에게 8천4백62만4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총2백21명에게 1억7천4백20만8천5백원을 지급했으며 前年同期對比 2천79만4천원이 증액됐다.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2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鄭宗澤상

임부회장을 비롯해 金道昶이사, 白樂院이사 白文基감사, 朴冠鎬이사, 李聖秀이사, 申讚雨이사, 朴英俊감사, 孫京植제일제당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李世震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서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엘리트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받은 장학금을 차후에 후배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주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승진(자연대석사과정)군이 답사를 통해 『시대에 어긋나지 않는 곧고 건실한 나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장학금수여식은 김현정(음대석사과정)양의 대금연주와 신동원(음대성악)군의 축하로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식후에는 동창회관 4층에 새로 단장한 「서라벌」 식당에서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仁子)=木蓮會장학생 1명:74만5백원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6명:5백44만5천원 ▲법과대학동창회(회장 琴震鎬)=駱山獎學會 52명:4천4만원 ▲사범대학동창회(회장 閔丙俊)=15명:6백만원 ▲상과대학동창회(회장 張禮準)=向上獎學會 34명:1천7백만원, 연구보조비 3명:3백만원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金範來)=1명:70만원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악대학동창회(회장 李誠載)=1명:1백10만7천5백원 ▲치과대학동창회(회장 金讚淑)=4명:5백10만6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4백만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1명:91만7천5백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5명:4백52만7천5백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亨錫)=5명:1백50만원

만평

李元馥



이 어른들이 이룩하신 향기로운 업적!
— 17분 교수님 정년퇴임

「서울대 총동창회 국민카드」 1년만에 1만명 돌파



지난 28일 본회 李世震사무처장이 姜孝植동문의 차녀 姜玟那(92년 齒大卒·백병원)동문에게 항공권 등을 전달했다.

본회가 동창회의 활성화, 모교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동문들의 결속력 제고 및 편익을 위하여 지난 94년 9월부터 실시해온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 발급사업이 동문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지난 25일 현재 개인카드 1만매, 기업카드 1백77매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개인카드 1만매 돌파 기념으로 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 1만번째 신청자인 姜孝植(61년 齒大卒·백병원 치과부장)동문 부부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주도 서귀포 파라다이스 비취호텔(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 제휴업체) 2박3

일 숙박권,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했으며 추첨을 통해 1백명에게 동창회 기념 지갑을 증정했다.

총동창회 제휴카드사업을 실시한지 1년만에 단일 동창회 신용카드중 처음으로 1만매를 달성, 자축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문들의 동창회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본회는 이에 만족치 않고 회원수의 배가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며 회원들의 편익과 특전을 위하여 제휴업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동창회관 관악홀 새롭게 단장 제일제당·삼성전자 도움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이 지난 19일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 새롭게 단장했다. (사진 3면광고)

제일제당 孫京植(61년 法大卒·본회이사)회장이 5천만원을 출연하고 삼성전자 姜晉求(55년 工大卒·본회부회장)회장이 음향기기를 협찬, 실내 도장과 전등·커튼·단상등을 교체함으로써 관악홀은 동문들의 결혼 및 출판기념회등 각종행사를

좀더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치를 수 있게 됐다. 21만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

한편 동창회관 지하 1층, 지상 4층에 한식과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서라벌(舊마로니에)음식점이 최근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피로연 및 회갑연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했다.

(變)

간호대동창회

3회 동기회 홈커밍행사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8월18일 간호대학교수회의실에서 제35차 전체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5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과 가을야유회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으며, 졸업30주년을 맞이하는 3회 동기회를 중심으로 오는 10월9일 모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홈커밍행사를 개최하

기로 잠정 결정했다. 홈커밍행사는 기념학술대회 및 강연회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며, 설악산등으로 기념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同窓會는 앞으로 홈커밍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동문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치대동창회

일반회원도 이사회에 참여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최근 기별동창회장, 지부장등 임원들만 참석해 오던 이사회를 일반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회장단회의는 매월 1회로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 방안으로 각 기별로 2, 3명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金회장이 새로 선임한

同窓會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金達澤, 徐永圭, 金周煥, 李春根, 金東順, 李永玉, 金英海 ▲명예회장: 金光男 ▲부회장: 奇昌德, 朴永淑, 閔丙一, 徐鎭寬, 李炳奎, 梁精康, 金基琳, 鄭寬喜, 李起澤 ▲총무: 金重守 ▲협동총무: 李準圭, 金在燦 ▲재무: 文赫秀 ▲공보: 金鍾喆

공대동창회

금년도 회원명부 발간키로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 92년 회원명부를 발간한데 이어 3년만에 회원명부를 새로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同窓會는 그동안 회원관리를 전산화해 동창회 운영의 효율화를 꾀해 왔으며, 동문들의 주소 및 연락처등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될 명부에는 동문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 및 사업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광고란이 마련돼 있으므로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문의전화 877-0568, 880-7030)

의대동창회

캘린더제작 논의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7월7일 한남클럽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테니스대회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금년도 캘린더 제작과 이사 재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동창회 기금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오는 9월13일 하얏트호텔에서 支會長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志)

약대19회

모교에 5백만원 전달



7월20일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약대19동기회.

약대19동기회(회장 鄭勇)는 지난 7월20일 워커히호텔에서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李禮植약대동창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수와 50여명의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날 행사는 金忠燮동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鄭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역대회장인 洪又一, 白承元, 千文宇, 金輝培, 金錫吉동문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또한 모교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정성스럽게 마

련한 모교후원금 5백만원을 文昌奎 前학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졸업후 30여년간의 세월과 함춘원에서의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자기소개시간을 갖기도 하고 부부동반 장기자랑을 갖는등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同窓會는 이번 기념행사뿐 아니라 해외거주 동문들과 함께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캐나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북미 록키산맥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식품영양4회

金貴嫻회장 선출

식품영양학과4동기회(회장 權貞好)는 지난 8월17일 양재동소재 「아데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3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金貴嫻동문을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金회장은 목련회 이사와 함께 식품영양학과 전체동기회대표를 겸임하게 됐다.

임산공학1~7회

장학금 지원계획

임산공학과1~7동기회(회장 李鍾泳)는 지난 7월28일 任元淳동문의 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10여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모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정을 돈독히 해온 同窓會는 임산공학과 1회부터 7회 출신중 연락 가능한 동기들의 모임이다.

개개인의 작은 일상사부터 크게는 경조사까지 함께 하는 同窓會는 아직은 친목모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泳)

明鏡會

재학생 2명에 장학금 수여



明鏡會의 95년도 정기총회(좌로부터 네번째 金基玉회장)

明鏡會(회장 金基玉)는 지난 7월20일 세종호텔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성여자사범학교 출신 동문들의 모임인 同窓會는 이날 「明鏡會報」 제21호를 배포하고 師大 재학생 권보정(역사교육학과 4년)·정순미(사회교육학

과 4년)양에게 장학금으로 등 록금 전액을 전달했다.

金得實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96년도 정기총회에 맞춰 새 회원명부를 발간, 배포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50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적 목표가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국민적 합의를 서서히 모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난 「8·15」 전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경축사와 국정운영 방향제시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집약된 우리의 다짐과 목표는 첫째 남북통일이요, 둘째는 21세기 일류국가가 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는 역시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기구(WTO)발족이후 가열되고 있는 국제경제전쟁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이룩해낸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다.

우리 경제는 재벌편중과 분배의 미흡, 지역과 업종의 편차, 대일무역역조의 심화, 경쟁상대로 떠오르는 개도국의 추격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탄력성이 커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삶의 질을 높이고 통일에 필수적인 비용을 무리없이 충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진경제권에 가능한한 빨리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력만 갖고는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 앞



정치와 교육의 개혁, 시급하다

에 제시된 국가적 목표들은 국민의 자각과 총합에 의해서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과 능력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교육의 선진화가 중요할 것이다.

광복50년, 이 시점에서 본 우리의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국민통합과 국력결집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는 지역색, 파당성등 갈등요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시대적 투쟁이 두드러짐으로써 반목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특정 정치인들 중심의 離合集散이 거듭되고 있어 국력의 분산과 불화를 조성하는 역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역시 구습과 후진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지식주입만이 모든 것인양 운영되고 물질만능사교가 판을 치는 교육풍토가 아닌가. 인성과 윤리가 중요시되고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교육은 실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먼저 정치와 교육의 일대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 개혁은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장서서 이런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라 하겠다.

개혁과 경제발전이 함께 할 때 국가목표는 더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보는설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함

「鶴」의 조형물을 세우자

모교에는 이렇다할 상징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징물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서울대학교의 명물이라면 관악캠퍼스의 철제교문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시계탑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철제교문이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응모작품들을 놓고 학장회의에서 열띤 의견교환을 하던 일이 떠오른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몇몇 교수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구상한 것이 현재의 교문이다. 78년에 세워진 이 교문의 모양은 「국립서울대학교」란 글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교표를 따른 것이다.

상징물 정했으나...

병원의 시계탑은 대한제국시절의 작품이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의학의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계탑의 앞뜰에는 87년에 池錫永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시계탑과 동상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교에 상징물다운 상징물이 없었던 것은 서울대학교가 걸어 온 발자취를 살펴보면 이해할 만하다. 필자는 모교총장시절에 상징물에 대하여 관심이

컸다. 校獸나 校鳥, 校樹나 校木을 선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었다.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속출했지만 특히 校獸의 경우에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

우아한 자태 일품

곰, 황소, 불사조, 사자, 海駝 등 많은 동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동물의 대부분은 이미 타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궁리 저런 궁리끝에 필자는 鶴을 제안했다.

학의 우아한 자태가 일품인 데다가 그의 울음소리가 10리



權 彛 赫

(47년 醫大卒)학술원회장

밖에서도 들린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평화와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꼽혀왔으며 「鶴의 一聲」이나 「鶴千年」이란 표현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실상 우리 전통예술에서 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하다. 十長生圖에서나 예식장의 장식물에서나 학의 고고한 모습은 잘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학은 친밀감을 주면서도 기품있는

자세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학을 校鳥로 하지는 제안에 대하여는 예상외로 호응이 좋았다. 한편 느티나무를 校樹로 정하는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었다.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안정감을 주는 느티나무가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동문들 힘 모아야

이렇게하여 우리들의 상징물 즉 校鳥와 校樹가 13년전에 정해졌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하였고 오늘날에는 이런 상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다. 내년이면 모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동문들이 힘을 모아 학의 조형물이라도 제작하여 모교에 기증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동정

수상

▲柳達永(36년 農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제4회 대산농촌문화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安炳燦(75년 新大院卒·시사저널발행인·本報論說委員)=8월15일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安동문의 祖父인 安 濬열사는 한일합방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충북괴산 오랑강에 몸을 던져 순국한 애국지사이다.

▲李榮星(83년 社大卒·한국일보정치부기자)=최근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제59회 「이달의 기자상」(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다.

이동·선임

▲李英世(55년 商大卒·대한전자재료 부사장·本會理事)=최근 대한전자재료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李漢春(57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8월11일 駐우크라이나대사에 임명됐다.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지난 4월 새로 창립된 국제위암협회 3대회장에 피선된 동시에 제3



회 同학회 세계학술대회장으로 피선됐다.

▲金鍾大(59년 文理大卒·한국독어독문학회회장)=8월19일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에서 열린 제9차 세계독어독문학회에서 임기 5년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李圭澄(59년 文理大卒·국민은행장·本會理事)=7월28일 국민은행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민은행장에 유임됐다.

▲李圭鎔(59년 文理大卒·성신여대교수)=8월7일 성신여대 제5대 총장에 선임됐다.

▲金宗鎬(59년 法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8월23일 민자당 정책위의장에 선임됐다.

▲鄭星台(60년 師大卒·모교교수)=8월7일 임기 3년의 제3대 체육과학연구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金義在(62년 法大卒·서울기획관리실장·本會理事)=8월4일 행정1부시장(차관급)에 임명됐다.

▲成樂民(62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8월11일 駐카타르대사에 임명됐다.

▲金源會(62년 醫大卒·부산의대 산부인과과장·本會理事)=지난 5월 스위스 Basel에서 개최된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 대의원총회에서 5명의 집행이사 중 한명으로 선출됐다.

▲李正子(63년 文理大卒·우리민족하나운동본부회장)=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임시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李容璟(64년 工大卒·한국통신연구개발원장·本會理事)=7월29일자 무선통신개발단장에 임명됐다.

▲朴範珍(64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8월23일 민자당 총재비서실장으로 선임됐다.

▲禹鍾漢(64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8월11일 駐오만대사에 임명됐다.

▲李進(64년 文理大卒·前환경처차관)=3년간 일본국립환경연구소에서의 연구생활을 마치고 9월부터 공주대학에서 지구환경론을 강의하게 됐다.

▲林大澤(64년 師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8월11일 駐카메룬대사에 임명됐다.

▲文學模(64년 商大卒·한국은행이사)=7월19일 금융결제원 전무에 임명됐다.

▲朴一策(64년 商大卒·중소기업은행인사부장)=8월17일 중소기업은행 부행장보에 임명됐다.

▲金昇永(65년 法大卒·외무부재외국민영사국장)=7월24일자로 駐코스타리카대사에 임명됐다.

▲李千洙(65년 法大卒·교육부차관·本會理事)=8월22일 중국 심양시 소재 요령 발해대학의 명예학장으로 추대



됐다.

▲吳世鍾(65년 商大卒·前장기신용은행전무)=7월25일 장기신용카드 사장으로 승진했다.

▲裴順稷(66년 商大卒·前국민은행 종로지역본부장·本會理事)=8월13일 국민은행자회사인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사장으로 선임됐다.

▲金起顯(67년 商大卒·산업은행 자금부장)=7월25일 산업은행 부총재보로 승진했다.

▲金在燮(68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駐체코대사로 선임됐다.

▲金泰天(70년 新大院卒·한국증권협회상무·本會理事)=8월16일자로 고려증권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孫鶴圭(73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8월23일 민자당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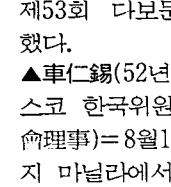
▲金炳宰(74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8월7일 방송위원회 재심의위원에 위촉됐다.

▲李廷熙(83년 經營大卒·회계사)=안전세화회계법인에서 조세담당 파트너로 근무하게 됐다.

행사·출간

▲徐燦珪(46년 法大卒·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8월9일 불교방송공개홀에서 鄭良模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초청, 「고려시대 도자기」라는 주제로 제53회 다보문화강좌를 개최했다.

▲車仁錫(52년 文理大卒·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本會理事)=8월14일부터 18일까지 마닐라에서 유네스코 필리



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亞·太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자문회의와 亞·太지역 국제교육 및 가치교육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했다.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복지재단이사장·本會理事)=8월16일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최고 국제관리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金昌基(55년 法大卒·양재교교장)=8월29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한국해결학회회장·本會理事)=8월8, 9일 한남대와 동학사에서 同會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金鍾云(57년 文理大卒·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8월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50년, 통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광복 50주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本會理事)=지난 7월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吳隣煥공보처장관을 초청,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준비하는 방송정책」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李龍兌(57년 文理大卒·한국 정보산업연합 회장·自然大同窓會長)=9월 14,15일 양일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초일류 멀티미디어 사업전개를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李漢雄(58년 商大卒·신협중앙회장·本會理事)=중국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의 연변신용호조협회 회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黃秉泰(58년 商大卒·駐中大사·本會理事)=8월4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95 儒家思想과 시장경제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本報論說委員)=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초청으로 7월29일부터 1개월간 방문연구를 수행하며 퀸즐랜드대학교와 뉴캐슬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주관하고 초청강연을 했다.

▲李符永(59년 醫大卒·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장·本會理事)=7월5일부터 7일까지 환자가족을 위한 제1차 정신보건교육을 실시했다.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과학기술처 장관)=8월23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룸에서 島山조찬 세미나에 참석,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景商鉉(56년 工大入·정보통신부장관·本會理事)=8월14일 국방대학원에서 안보 및 교육과정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세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洪寅基(60년 法大卒·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本會理事)=8월3일 광주 금남로5가 대신무등빌딩 2층에서 광주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陳剛(60년 藥大卒·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本會理事)=8월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자 직영병원인 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蔡載億(61년 法大卒·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本會理事)=8월8, 9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관에서 「공장혁신 리팩토링세미나」와 「업종별 독일 ISO전문가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裴重燮(61년 文理大卒·국회도서관장·本會理事)=8월14일부터 28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목록실에서 「광복50주년기념 국회전시회」를 열었다.

▲李相完(61년 醫大卒·대한교통의학회장·本會理事)=8월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국제재난 및 교통의학학회 한국대표로 참가해 「한국교통 안전 문제와 정책 우선과제」에 관한

연제발표를 했다.

▲柳錫烈(62년 師大卒·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本會理事)=8월 8, 9일 양일간 모교 문화관에서 「세계화, 통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95년 학술연구발표대회를 가졌다.

▲李道卿(63년 農大卒·부평문화재단이사장)=8월25일자로 재단법인 부평문화재단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이다.

▲金玉照(63년 法大卒·한국언론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미국등 선진 6개국의 국가별 언론관계법 현황을 집대성한 「세계언론법」(상권)을 발간했다.

▲崔勝夫(64년 文理大卒·노동부차관·本會理事)=7월27일 제주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卞柱仙(64년 師大卒·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本會理事)=8월5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나주, 천안, 대구, 대전 등 전국민족항쟁지에서 「나라사랑 이동봉사캠프」를 열었다.

▲劉完彬(64년 行大院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8월8일부터 11일까지 중국북경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21세기 동북아국가의 평화적 협력과 발전방향모색」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宋源吾(65년 工大卒·한국해양연구소장)=8월1일부터 8일까지 서울 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남극의 자연환경, 세종기

지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 각종 동물박제등을 전시하는 남극사진전을 개최했다.

▲任孝幸(65년 文理大卒·한국신석기연구원장)=8월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쓰시마에서 일본 조몬연구회와 공동으로 「한일 신석기 연구공동심포지움」을 열었다.

▲金安濟(65년 行大院卒·한국지방자치학회장·本會理事)=8월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6·27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吳明(66년 工大卒·건설교통부장관·本會理事)=7월26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전국자동차대여사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鄭東俊(67년 行大院卒·모토로라퇴직자클럽회장)=8월24일 서울역그릴 장미실에서 「모토로라의 한국 및 전 세계의 활동상」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李相俊(68년 工大卒·까치종합건축사장)=8월3일부터 4일까지 하버드대에서 열린 공항관련세미나에서 영종도 신국제공항에 관한 주제로 강연했다.

▲李秀哲(68년 音大卒·세바스티안실내악단리더)=중국심양음악원으로부터 초빙교수로 초대받아 바이올린과 실내악을 강의하고 7월12일 귀

국했다.

▲李建榮(68년 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8월7일부터 12일까지 同窓가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후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다.

▲洪起容(69년 農大卒·한국지역개발학회장·本會理事)=8월17, 18일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변화와 도전-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金元雄(72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7월28일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언론편집기자세미나에 참석, 「낯은 정치타파와 새정치세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金基道(72년 新大院入·국회의원·本會理事)=95년 2학기부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강의를 하게 됐다.

▲俞在賢(73년 工大卒·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8월22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동아시아지역 대기문제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李幸淑(77년 音大卒·피아니스트)=8월16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위스콘신대 음악대학 개교1백주년 기념 「이행숙·이현순 피아노 듀오연주회」를 가졌다.

▲權奇成(79년 行大院卒·공정거래위원회심판행정과장)=지난 2월 송실대 무역학대에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

▲李玟揆(86년 工大卒·플로리다대박사학위과정)=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李동문은 96학년도 봄에 학위수료 예정이다. (정리=金愛泳기자)



정치학과 첫 정년퇴임 교수

金榮國동문



서울대동창회보창간의 주역이자 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金榮國(54년 文理大卒·本報論說委員)동문이 모교 정치학과 교수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을 했다.

정치사상사를 전공한 金동문은 1958년 28세의 나이로 정

치학과 교수가 된 이래 끊임없는 정치참여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교단을 지켜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게 된 것이다.

「학자는 학문적 외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金동문은 재직 37년간 후진양성과 학문연구등 교수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정치학과와의 대부」로 자리잡아왔다.

「ABC」에 기금 전달

閔丙峻동문



閔丙峻(56년 師大卒·두산개발부회장·師大同窓會會長)한국광고주협회장(사진右)은 지난 8월1일 서울 롯데 아테네홀에서 신문잡지부수公査기구(ABC협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성된 「ABC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80억원의 한국방송공사에 조성된 공익자금 지원분 50억원과 2백28개 회

원사들이 모금한 30억원을 합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광고주협회 姜信浩고문, 金文聖부회장, 洪五善전무이사, 崔鐘律한국신문협회장, 黃正顯전경련상근부회장, 全應德한국광고단체연합회장, 南相祖한국광고협회장, 成樂承한국방송공사사장등이 참석했다.

〈泳〉

許信行 소비자보호원장

“소비문화의 방향정립에 힘쓸 터”

지난 6월23일 제7대 소비자보호원장에 취임한 許信行(66년 農大卒)동문은『소비자보호라는 막중한 업무에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업무역할로 보아서는 사회전반적인 신용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 신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아직 우리나라 소비행태 내지 소비문화의 방향정립이 잘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크게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중장기 비전, 나아갈 길을 정립하면서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보았듯이 소비자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구제등에 중점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요즈음 새로운 농수산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생적 차원에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위해성 식품들에 대한 검사, 시험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 건축, 보험등 소비자가 견제하기 어려운 분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각종 사기들이 일어나는 것은 소비자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조합주택의 사기등은 소비자입장에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보험등 새로운 분야에 소비자가 어떻게 자기보호를 위한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도적 문제도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재학시절의 추억담과 평소



의 생활철학은...

『재학시절은 경제발전이 되지 않은 60년대초라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 틈나는대로 농촌 계몽운동등을 통해 농민들과 땀흘려 일하며 농촌의 개발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철학이라고 말할 것은 없으나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 긍정적인 사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작하게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일원인 동문들에게 하고픈 말씀은...

『많은 동문들이 사회각계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기에 항상 마음뽕뽕하고 좀더 국가

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문들이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소비원이나 저에게 전화를 주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주말이면 테니스로 체력을 다지는 許동문은 美미네소타大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수산부장관등을 역임하고 지난 94년 7월부터 강원대 축산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해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柳賢子여사와 2남 1녀를 두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전화: 709-3600〉 〈燮〉



世祖의 「東學」



韓佑勸명예교수

지식의 원천은 기록에 있다고도 한다. 역사의 자료가 되는 그 많은 기록을 빠짐없이 살펴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유별나게 주목해야 할 기록에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동학이라면 의례히 19세기 말에 崔濟愚가唱導하고 또 그 교도들이 가담하여 일으킨 동학농민봉기에 관해서만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그 유래나 경위는 다르지만 이보다 몇 백년 전에 그것도 세조의 賜號에 의해서 동학이라는 말이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다시 서원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몇 백년 동안이나 존속되어 왔던 사실에 관한 기록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다.

東鶴에서 東學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해온 「韓國文集叢刊」 중에는 후손들에 의하여 마련된 趙旅의 漁溪集이 들어 있어, 그 중의 「東學書院事蹟」이 필자의 눈에 띄었다.

세조가 일찌기 東鶴寺에 들러서 儒生·僧徒에 명하여 단종 때의 군신을 함께 제사하게 하면서 「東學」이라 賜號하여 그 뒤로 東

鶴寺는 東學寺로 호칭하게 되었다. 원래 東鶴寺에는 단종때 宰相들의 魂殿이 있었고, 그 곁에는 祠堂이 있어 원래 圃隱·牧隱·治隱의 位를 모시던 三隱閣이었다. 얼마 후에 그 사당을 중요시하여 東學寺는 東學書院으로 바뀌게 되어, 그 동학서원은 현종 2년 5월에 이르러 철회되고 원래의 東鶴寺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이 憲宗實錄에 밝혀져 있다. 이로써 우리는 東鶴寺가 세조의 사호로 東學寺로 고쳐 부르게 되고, 그것이 다시 東學書院으로 바뀌어 몇 백년 동안 동학이라는 말이 사찰과 서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전통사상의 재구성

19세기 말 유교윤리가 퇴락되어 窮民·殘民들이 곤궁에 시달리고, 洋貨의 범람, 천주교의 유포, 異樣船의 연안출몰등 나라의 안위가 염려되던 시기에 崔濟愚는 동학을 창도하여 전통사상의 재구성을 꾀했던 셈이다. 동방인(한국인) 자신의 덕성·事親奉先의 덕을 존중하여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 동학의 의미 내용에 있어서는 세조의 경우나 崔濟愚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이해된다.

경제성장우선·기술만능의 풍조 속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반면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관·윤리관이 실종되는 혼돈속에 안방에까지 倭色문화가 넘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마저 들려오는 이때, 동학같은 사상을 다시 음미하여 새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저명인사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우리가 진짜 서울대 휘밀리

盧東榮(81년 醫大卒)의대교수



뒷줄 좌로부터 필자, 매제 白丞鎮동문, 앞줄 좌로부터 동생 盧東珠, 부인 李秀瑤.

매제(白丞鎮·83년 齒大卒·구구치과원장)와 내가 만난 것은 재미있는 사연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금 구식의 전통적인 혼례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어릴적부터 결혼관에 대하여는 부모가 점지해 주는 상대를 얻어 댁집 아랫집으로 살며 부모근처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항시 가르치셨고 또 나와 여동생들은 그리 활달하지 못한 까닭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께서 정해 놓으신 상대를 만나보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몇 번이고 선을 본 후, 비로소 결혼하는 방식을 큰 거부감없이 따랐었다.

여동생이 꿈꾸던 왕자

내 여동생(盧東珠·87년 梨大 美大卒)도 대학원을 다니며 간간히 선을 봐 오던중 어느날 자기가 꿈꾸어 오던 왕자님같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아버지(盧寬澤·55년 醫大卒)께서 마침 모교교수로 계셔서 쉽게 치과대학 교수분들로부터 매제에 관해 수

소문해 볼 수 있었고 나도 치과대학의 후배들을 통해 매제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 알아볼 수가 있었다. 매우 활동적이고 만능 스포츠맨이며 재학 시절에 과대표를 할 정도로 사회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여자에게는 준수한 용모에 흰출한 키와 건장함을 갖춘 매력 만점의 신랑감으로서 내 동생과 마음이 잘 맞으니 천생연분으로 쉽게 결혼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를 본받아 조만간 세 번째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버르고 있다.

나의 처남(李秀雄·92

년 工大卒)도 모교 동문인데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한때 장인(李濟帝·53년 商大卒)께서는 처남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 사위를 동원하여 설득작전에 나섰으나 의대는 적성이 맞지 않아하여 전자공학을 택하였다. 나의 처남, 매제들은 모두 호인이고 주관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의대가족의 대를 이어

따지고 보면 내 장인의 장인(金晟鎮·30년 醫大卒)과 처남(金時漢·58년 醫大卒), 매제분들(朴成藏·58년 農大卒, 朴祥基·62년 工大卒)도 모두 모교 동문이니 처남·매제간의 서울대 가족은 그리 드물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우연하게도 내 장인의 장인과 처남께서는 나와 외과학 교실의 동문으로, 나는 마치 외손녀, 조카 사위로서 직업상 대를 잇고 있다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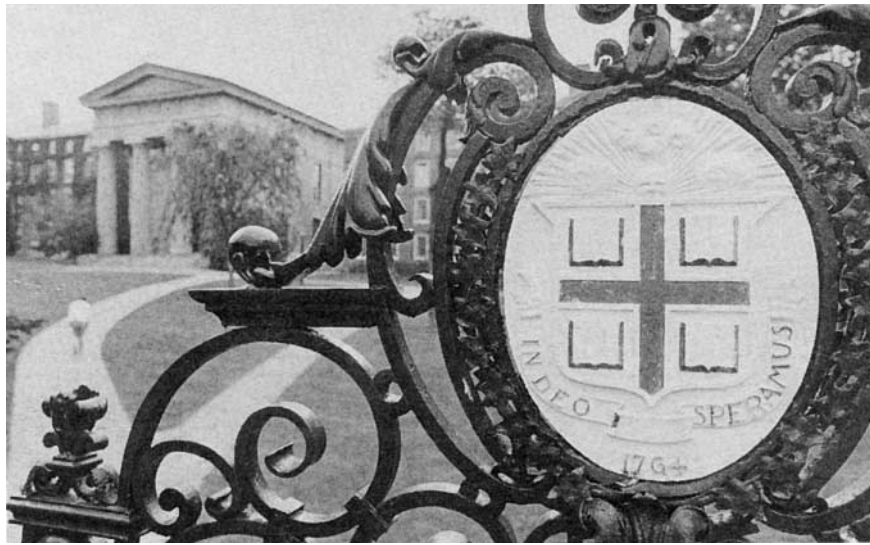
학부와 대학원 교수진은 다 같아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대학

河炫俊(82년 師大卒)한국외국어대교수

1764년에 세워진 브라운대학교는 미국 뉴잉글랜드의 제일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시 교외 아담하고 환상적인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에서 일곱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고 학문의 전통과 권위를 가장 착실히 지켜온 명문사학 아이비리그 스쿨 중의 하나다.

브라운대는 총 5천4백명의 정원을 갖는 남녀공학이며 옛날 수도원을 연상케하는 조용한 캠퍼스는 뜨거운 학과 자유로운 학문의 열면 토론장이다. 아이비리그의 다른 대학들 즉 하버드나 예일대 등이 설립 당시 자기네 교과의 학생들만을 모집하던 것과는 달리 브라운대만은 설립당시부터 교과를 초월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던 매우 자유적이며 개방된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비록 적은 학생 수이지만 문학, 철학 등의 인문과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문 분야에 걸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왓슨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공학은 미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컴퓨터의 연구를 시작한 학교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브라운대는 법과대학이나 상과대학은 없으며 1975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의과대학이 약 3백명의 정원으로 있고 그들 대부분은 브라운대에서 학부과정부터 시작하고 있다. 대학원은 정원이 약 1천3백명이며 박사과정을 위시한 35개의 학문분야에 6개의 과정이 있다. 학문의 장으로서의 학교 뿐만 아니라 젊음의 멋과 열정을 만들어내는 여러가지가 함께 있다. 얼마전 국내에서도 공연한 바 있는 아카펠라합창단,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도 한 바 있는 오케스트라단이 있고 여러 전시회와 강연회 등의 갖가지 모임이 있으며 아이



정문에서 바라본 브라운대 캠퍼스.

스하키, 미식축구, 농구, 배구, 수영, 축구 등의 온갖 스포츠가 함께 한다.

유명인되어 졸업식 참석

브라운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50여개국, 미국 내에서는 50여개의 대부분 주에서 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약 10%가량이 외국인이다. 우리 한국학생들은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을 포함해서 약 60여명이 있다. 이들 학생들은 브라운대의 인문, 예술 및 과학 교육에 대한 매우 우수하고 자유로운 교과 과정에 매료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입학경쟁률이 다른 우수한 사립대학교들보다 훨씬 높은 약 10대1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최근 미국 역대 대통령들, 미국 굴지의 기업인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유명인사 자제들이 브라운대를 현재 다니거나 졸업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몇 차례 맞이하던 5월 졸업식장에 나타나는 세계 여러 저명인사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브라운대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대학임에 틀림없다. 브라운대의 교육은 그 옛날 학교설립 이후부터 설립강령「새로운 세대」를 교육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이들 젊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세계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 세계 지성의 지도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인기와 영향에는 브라운대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일류급의 교수, 장비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 및 대학간의 활발한 교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13대1의 바람직한 학생대 교수의 비율은 교육적 효과를 최대로 하며 타대학과는 달리 단일로 통합된 교수진에 의한 학부와 대학원생의 가르침에 있다. 브라운대

의 뛰어난 교수진은 모두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으며, 열심히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학생대 교수는 13:1

이러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브라운대는 그 역사만큼이나 한국과의 인연 또한 깊다. 기록에 따르면 1883년에 태어난 백상규씨가 1905년 브라운대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브라운대에서 공부를 했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2백여명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들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계와 정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브라운대 동문들 중 20명 가량이 현재 모교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편 작년 5월 신문지상을 통해 「白樂晴교수, 동양인 최초로 브라운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문과에 재직 중인 白교수는 1959년 브라운대 학부를 졸업 후 만 35년 후 그의 학문적인 업적과 민주화의 노력을 기려 동양인 최초로 명예인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브라운클럽 멤버로서 尹容九(한국과학기술원)·趙成浩(고려대)·朴敬培(KIST)박사가 모임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韓洪燮(한국컴퓨터 사장)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일년에 몇 차례씩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브라운대와 한국의 관계는 현재에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모교소식

공대 「전자도서관」 내년 준공 음성·영상등 첨단정보 제공 계획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첨단 멀티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인 공학기술정보센터를 내년에 착공, 오는 9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2백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제1공학관 맞은 편에 연건평 3천평 규모로 세워질 전자도서관은 문자에 의존하던 기존 도서관의 정보전달방식과 달리 음성·영상·화상등이 결합한 첨

단정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공과대학은 앞으로 공학기술정보와 관련된 학위논문·연구보고서·비디오·오디오·CD를 등을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내대학은 물론 산업체·정부기관·연구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17명 정년퇴임식 거행

지난 8월31일 교수 17명의 정년퇴임식이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榮國교수(정치학), 金濟珽교수(수학), 金鎬澈교수(화학), 金淵植교수(금속공학), 朴惠一교수(원자핵공학), 安秀桔교수(전자공학), 鄭厚燮교수(농생

물학), 申熙明교수(물리교육), 趙忠鎬교수(수의학), 鄭源根교수(약학), 金容振교수(작곡), 金勝煜교수(의학), 金鎭永교수(의학), 盧寬澤교수(의학), 尹東浩교수(의학), 閔丙一교수(치의학), 李鳴鍾교수(치의학)
(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판사출신 2명 강사로 법과대학 10년만에 처음

모교는 9월1일자로 신규 채용하는 교수 27명중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金載亨(87년 法大卒)판사와 前서울민사지법 張勝和(85년 法大卒)판사등 2명을 법과대학 사법학과와 공법학과 전임강사로 각각 채용키로 결정했다.

법관출신이 교수로 채용된 것은 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중 임용된 법과대학 사법학과 梁彰洙(74년 法大卒)교수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법과대학 최연소 교수가 된

金교수는 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군법무관·서울지법 서부지원·민간지법 판사를 역임했고 지난 2월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張교수는 84년 사법시험에 합격, 88년부터 91년까지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으며 92년과 94년 美하버드 법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까지 美법률회사인 커빙턴앤드빌링의 변호사겸 조지타운법대 외래교수로 재직해왔다.

교육환경 개선키로 캠퍼스경찰제 도입

서울대발전위원회(위원장 黃迪倫)는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외국인 학생의 입학확대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이용규범 제정, 캠퍼스 경찰제도 도입, 자유열람도서관 신설, 체육시설 확장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학생(해외동포 포함)의 입학을 장려하고 교수·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신임 음대학장 李成均교수 취임



음악대학 제19대 학장에 李成均(57년 音大卒)기악과 교수가 9월1일자로 취임했다.

지난 6월16일 교수후계실에서 열린 학장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李교수는 59년 대학원을 졸업한후 64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음악대학 학생과장, 기악과장을 역임하며 국내외의 수많은 연주회를 가졌으며 현재는 한국피아노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중국인 2명 대학원서 수학

북한에서 교육받은 중국인 교수와 연구원등 2명이 특별수학생으로 선발, 2학기부터 모교에서 수학하게 됐다.

중국 하얼빈사범대 교육학과 辛寶忠(북한 김형직사범대 교육학부 준박사학위)교수는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학생으로, 북경 시나가 동물학연구소에서 일해온 趙勇(북한 사리원 농대 학사학위)연구원은 농과대학 생물학과 석사과정 특별수학생으로 선발됐다.

대학원전임교수 채용

자연과학대학(학장 張浩完)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천년까지 대학원 전임교수 50명을 임용하는 등 교수 1백35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變)

「코지 판 투테」 오페라공연



작년에 공연한 오페라「요술피리」중의 한장면.

음악대학(학장 李成均)은 9월4일부터 6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모짜르트의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로 제18회 오페라공연을 개최한다.

청소년을 위한 대학오페라 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

번 행사는 林憲政교수가 예술감독, 趙誠振등문이 연출, 金德基교수가 지휘를 맡았으며 음대 합창단 70명과 오케스트라 65명이 함께 공연해 종합예술로서 오페라 특유의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동문업소
탐방

주유소 「금성」

호남정유 명예퇴직후 개업



鄭永熙(65년 工大 化學工學科卒)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진해에서 4년간 복무했다. 제대 후, 첫발을 내디딘 곳이 호남정유였고 그곳에서 25년을 근무했다.

『퇴직후의 생활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제부터는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2월에 전무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고객에 푸짐한 선물

명예퇴직을 결심한 후 93년 11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리 공사를 시작해 퇴직 5개월만인 94년 7월 「금성주유소」를 개업했다. 때문에 퇴직후의 공백기간은 있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바쁜 일과가 시작됐다.

금성주유소는 호남정유와 직접계약을 맺어 인테리어는 물론 경영전략, 개축, 증축등 모든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은 고객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있다.

이 곳에는 출, 퇴근이 어려운 직원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서 직원들은 그야말로 한술밥을 먹는 식구로 지내고 있

으며, 자연히 일터의 분위기도 정겨울 수 밖에 없다.

카인테리어도 일괄 처리

개업 1주년이 되는 지난 7월에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했다. 2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생필품을 증정했는데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효과까지 거두는 바람에 비수기인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7, 8천대에 이르는 고객을 유치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요즘에는 이곳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스티커를 배포해 정해진 수를 넘으면 그에 해당하는 푸짐한 상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정작 다른데 있다. 주유소 바로 옆에 카센터가 있어 주유는 물론 자동차 수리부터 카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환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곳은 30여명의 주유소 가족들이 한시 대기해 손님을 맞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신용카드 모든 종류를 다 취급한다. <志>

4인1강
이강민

헬스운동으로 건강회복

申勳澈(51년 工大卒)성우회 회장



나는 골프 나가는 날을 빼고는 거의 거르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스위트그랜드호텔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 기계를 쓰는 Fitness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정체중·체력 유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50대초부터 있었던 어깨 통증도 없어지고 상·하체, 팔, 다리, 허리, 등등의 몸 전체 운동기능이 예전보다 좋아졌음을 내 스스로도 느낀다.

25분 땀흘려 노폐물제거

내가 헬스클럽에 가입한 것은 호텔신라 개업초부터였으므로 오래됐지만 그 동안은 거기서 리셉션이나 회식약속이 있을때, 사우나로 휴식을 갖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정도였던 것인데 실은 4년전에 중병을 앓고 난 후 건강회복을 위해 Fitness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절망적이라던 드문 병으로 큰 여섯 달에 걸쳐 두번의 강한 화학요법을 받았고 감염으로 한때 사경을 헤매기도 했으나 다행히 살아남아,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이 5년전 일인데 그때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약화되버린 신체 운동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걷기부터 하는 Rehabilitation을 받게 되었고 귀국후

에도 신촌세브란스재활원에 다니다가 의사의 권고로 헬스클럽 Fitness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나 좋아 몸 돌볼 틈없이 직장일에 바쁜 중년, 초로, 특히 노화방지가 절실한 중·노년분들께 꼭 권하고 싶다.

나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고 있다. 시속 6.8Km의 빠른 속도로 Treadmill속보 15분, 열 몇가지 기계를 쓰는 손목, 팔, 어깨, 옆구리, 배, 등, 허리, 다리의 근육운동 10분, 합해서 소요시간은 25분 정도인데 이 정도면 땀이 셔츠에 흥건히 땀이다. 이것이 노폐물이 나오는 진짜 땀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한번 운동으로 가볍게 숨쉬고 심장·맥박이 뛰게 하는 것은 폐활량 증가와 혈액순환을 돕는 심폐기능 단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목적에 몸에 적당한 자극과 운동을 주어 노화를 막고 체력을 활성화, 유지시키는 것이며 권투, 마라톤 등 운동선수와 같이 특정 근육강화 훈련이나 인내훈련이 아니므로 절대 무리해서는 안된다.

적당한 자극이 노화방지

사용기계의 무게는 반복 12회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하는데 예를 들면 30Kg으로 해서 12번 반복이 힘들면 25Kg으로 줄이고, 15번도 거뜬하면 35Kg으로 늘리는 식이다.

病後의 Rehabilitation으로 시작한 Fitness운동이지만 病前보다는 몸 전체가 고르게 활성화되어 골프로 예전의 장타를 다시 날리고 있으므로 잊고 싶은 병력을 굳이 인용하면서 동문들께 헬스운동을 권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 21면 뜨락
- 22면 문화단신
특별기고
- 23면 모임탐방
- 24면 年會費납부자
- 27면 국민카드가입자

제210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9월 1일

【21】

8월회보를 읽고

내용이 점점 더 좋아져



지난 8월 동창회보에 「이웃 사랑 실천으로 사회봉사상 받아」라는 제목으로 필자의 동정 기사가 크게 특

필로 「클로즈 업」되어 감쪽 놀랐으나 한편으로는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서있는 사람들이 술선수범을 보이는 일이나 동문이 바로 선구자였소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오』라는 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는 것 같아 힘이 나고 뿌듯했다. 이처럼 동창회보가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있나보다. 동창회보가 처음 발간되어 직장에 날아들 때 표지만 보고도 만족하고 기뻐했다. 연료를 더해가면서 내용이 나아지는 것을 실감한다.

李英浩(60년 師大卒)

신계대설립위원장

음지의 동문 소개도...



동창회보의 성격은 일간지나 잡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같은 대

학에 입학하여 젊은 시절을 보내고 같은 동문으로 일생 활동하는 동창회보는 모교와 그 역사를 같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보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보에 나오는 동문들이 거의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일색이라는 것이다. 우리 동문중에는 음지에서 소리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러한 동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서 회보를 통해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羅成淑(75년 美大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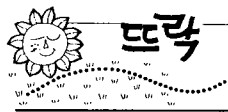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장

「동문의 소리」란을 통해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 집 부

전 화: 703-5954

FAX: 703-0755



나이가 무슨 문제냐

대학 졸업후 결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머리는 항상 비어있는듯 허전하다.

21세기의 부끄러운 바보가 되기 싫어서 컴퓨터 학원에 발을 들여 놓았고 학교 교무실에서, 집에서 두드리는 컴퓨터 소리가 부러워 시작한 컴퓨터 공부 즐겁다. 영어를 10년이상 공부하고도 병어리가 되고만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시작한 회화공부도 즐겁기만 하다.

교무실에서 출근을 알리고 동료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양호실에 가보면 어느새 몇명의 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입시지옥의 학생들이다.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눌 여유도 없는 가엾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때로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담임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문

제를 풀어주기 위해 공부도 해야하는 나의 일과 또한 즐겁다.

공부하면 생활 신선해져

때로는 가정문제, 아주 가끔 있는 성문제, 건강이나 심리적인 고민과 궁금증 때문에 찾아주는 학생들이 반갑고 이들에게 건강에 관한 지식을 주고 금연, 약물남용, 성교육, 성병예방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응급처치등을 전할 수 있도록 젊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몇년 전 원광대학 한의학과에 60세가 넘는 신입생이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나이에도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주어진 여건속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람은 많다. 뇌



金和子(63년 看護大卒)여의도高교사

의 신경기능은 무궁무진한가 보다. 책을 읽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생활이 신선해짐을 느끼고 가벼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곤 한다.

젊은이와의 대화 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가 많음을 운운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라고 말한다. 무슨 공부이든 새롭게 시작하니 젊은이와의 대화도 가능해지고 더 젊어진 것 같다는 그들의 즐거운 환성을 듣고 있다. 젊고 성숙하고 건강한 정신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지성인으로, 직장인으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광릉은 나의 행운

여름이 가려는가! 매미소리가 연구실 창가에 가득하다. 이 책상머리에 앉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무릇이 뿐만이 아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아름다워 꼭 그 이름을 알고 싶은 가지가지 새들의 노래소리, 벽면 가득한 창문 너머로 넘을 하게 서있는 질푸른 젖나무, 눈을 좀더 멀리 두고 보면 소리봉의 부드러운 능선이 흐르고 그 산세가 품어 안은 숲은 사시사철 그 빛과 느낌을 달리 한다.

자연의 신비 놀라워

이쯤되면, 이러한 자연환경에 자리잡은 필자의 직업이 궁금해질 것이다. 나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어 혹은 부자 남편을 두어 경치 좋은 곳에 별장하나 지어 놓은 팔자 좋은 글쟁이도 아니고, 득도를 하기 위해 속세를 뒤로 하고, 산으로 들어 간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바로 광릉수목원에 자리를 얻고서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

이다.

나는 식물을 공부하는 나의 직업과 이곳 광릉수목원이라는 직장을 갖게된 것을 무척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다.

꼼꼼히 들여다 보는 식물의 세계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신비하다. 어찌 식물만 그러하겠는가? 모든 자연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길을 택하게 되기까지는 몇번의 우연과 필연이 있었기 때문이지 고등학교때부터 무슨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많은 학생들과 그 부모님 가운데 대부분은 필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값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말해주는 이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작은 지면을 빌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일



李惟美(85년 美大卒)광릉수목원연구원

찍 그리고 많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키워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 갖고 살자

만일 아직까지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집안에서 부모님이라도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설사 나와 같이 자연과 더불어 일하는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평생 자연과 벗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는가? 나는 주머니가 아주 넉넉치는 않아도, 팔다리는 조금 고되어도 아주 행복하다.

문화

新刊

■法學教育과 法學研究
—故 鄭光鉉박사추모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회장 金哲洙·본보 논설위원)가 법학연구 1백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내면

서 韓國身分法の 개척자이며 身分法の 개정을 위해 헌신한 鄭光鉉교수의 추모논문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 논문집에는 鄭교수의 학덕을 기리는 제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길안사·값 6천원)

■ 뭐가 地球야 水球지
—崔俊浩 著

20여년동안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의 작품만을 번역해온 崔俊浩(56년 法大卒)동문이 그동안 정리해온 수



필, 가족의 碑銘, 시, 논총등을 모아 책을 펴냈다.

崔동문은 86년 검찰 부이사관으로 퇴임한 후 현재 고향인 김포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며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한국법정신문사·값 5천원)

■ 세계화의 이모저모
—金浩珍 著

「시사뉴스」의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인 金浩珍(58년 法大卒)동문의 시사컬럼 모음집.

「세계화」, 「역사의식」, 「개혁」, 「독자투고와 신문스캔들」의 4장으로 구성돼 일반국민이나 사회지도층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국일신문·값 6천원)

公演

■ 마드리 실내악단
협주곡의 밤
—9월22일 호암아트홀

KBS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全用宇(82년 音大卒)동문의 객원 지휘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에서는 푸치니, 베버, 브루흐,

모짜르트의 작품이 연주된다.

■ 朱一葉바이올린콘서트
—9월16일 문화일보홀

바이올리니스트 朱一葉(77년 音大卒)동문의 듀오콘서트.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악장으로 있는 朱동문은 이날 연주회에서 보케리니, 타르티니, 토렐리, 바르토크의 작품을 연주한다.

展示

■ 李珉柱한국화전
—9월6일 갤러리이콘

고대의 간혀진 이콘들의 상징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꿈꾸는 「허와 실Ⅵ-이콘으로부터의 해탈」 연작. 한남대 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李珉柱(80년 美大卒)동문의 9번째 개인전.

■ 金榮大작품전
—9월2일 나비스화랑

충남대 미대 교수로 재직중인 金榮大(75년 美大卒)동문은 이번 조각작품에서 화염의 흔적, 화석화된 형태와 색깔을 지닌 장독·주전자·냄비·유리병 등을 통해 사물의 존재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다.

(정리=安興燮기자)

특별기고

이삿갓 방랑기

李典九 前뉴욕지부동창회장



눈덮인 백두산에서(뒷줄 우로부터 두번째 필자)

李典九(64년 農大卒·前뉴욕지부동창회장)동문이 지난 4월 재미산악인 금강산·백두산등반대의 일원으로 북한을 돌아보고 연문시(일명:이삿갓 북한 방랑기)를 보내와 이중 백두산부분을 간추려 실는다.

백두산에 눈 날리고 삼지연에 비 날린다.
눈 쌓인 장수봉엔 쌓인 눈이 되날리고
휘몰아 돌아치는 돌개바람 차갑구나.
재미동포 여기왔네 구름걸고 멈추시게
돌고돌던 돌개바람 천지안에 잠이드네.
일년중에 삼백오십일 구름속에 머물더니
동남풍에 빌어올린 제갈공명 정성인듯
밝고 맑은 백두천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백두산신 감동하여 햇별뽕뽕 비취주네.
장수봉에 잠을 자고 병사봉에 올라서니
이천칠백 오십미터 상상봉이 여기라네.
우리민족 정기어린 명산이 아니던가
하루빨리 통일이워 우리 함께 살아보세.



동물구조단

“주인없고 아픈 동물은 다 모여라”

수의학과 동문 8명으로 시작, 2백30명으로 늘어

신나게 달리던 경춘가도, 도심에서 벗어나 음악도 크게 틀고 소리도 지르며 달리던 길에 검은 물체가 휙 지나간다. 「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딪친다. 급브레이크. 놀란 가슴으로 내다보니 작은 동물이 신음하고 있다. 앰블런스를 부르자니 인간에 대한 모독인 것 같고 그냥 지나치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어쩔까.

24시간 구조의 손길 펼쳐

『우선 다친 동물을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한 뒤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3백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쳐서 신음하고 있는 동물은 물론 미친 개나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들, 길에 떨어진 소쩍새까지, 보호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동물구조단 張文準 실장의 조언이다.

8명의 수의학과 동문들로 구성된 동물구조단(단장 趙維珍·89년卒)은 인간을 위한 동물구조를 목적으로 94년 11월에 창립, 2백30명의 회원과 함께 한 시도 쉬지 않고 동물구조에 앞장서고 있다.

『수의사로 개업을 하고 있는 9명의



건강을 되찾은 올빼미를 한밤중에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동문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본부에서 밤을 새고 번갈아가며 지방에 갑니다』

포천보호소도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동물보호대원들은 자신의 일과 병행하기가 말처럼 쉽지않다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은 8등분으로 나눠 각출해야하는 형편이라서 집에서

의 눈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에 와서 저희가 포기한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몇배로 더 힘이 들 것입니다』

동물들의 치료뿐 아니라 사체의 소각처리, 다시 건강을 찾은 개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입양까지 말

아하고 있는 구조단원들의 동물을 아끼는 마음은 각별하다.

『사나운 동물은 마취총이나 올가미 등을 이용해 잡습니다. 그렇게 잡은 동물들은 상처가 치유되면 다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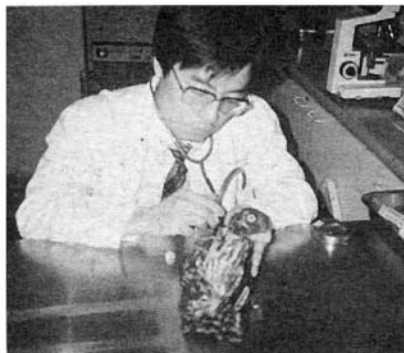
치료 어려울땐 안락사시켜

얼마전 올빼미를 2주정도 보호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야생의 습관을 잊어버려 애를 태운 적이 있다고 한다. 올빼미는 쥐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먹이를 잡아먹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그냥 야생으로 돌려보내면 굶어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동물구조단 단원들은 열흘동안 밤마다 광릉수목원으로 올빼미를 데리고 가서 나무에 쥐와 함께 묶어놓았다고 한다. 일주일정도가 지나서야 쥐를 잡아먹더라는 것이다.

지금 동물구조단 본부에는 개와 고양이, 물론 원숭이, 소쩍새, 고슴도치, 너구리등이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치료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동물들이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의 경우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고.

외국의 왜곡된 우리 모습을 바로잡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조단에는 모교 수의대 교수인 李昌雨(67년卒), 南治州(68년 大學院卒)동문이 고문으로 있으며, 단원으로 沈允輔(88년卒), 禹興命(88년卒), 楊鎮健(89년卒), 宋普燮(90년卒), 朴壽元(91년卒), 金峻培(92년卒)동문이 활약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야할 일에 비해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구조단은 자원봉사자나 뜻을 같이 하고 후원해 줄 동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연락처: 전화 994-2851) 〈泳〉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7월 8일 ~ 18일 · 一般: 7월 12일 ~ 20일〉

이 사

◇人文大學

- ▲김석태 ⑥한불종합금융차장
- ▲서원석 ⑧한려개발사장

◇社會科學大學

- ▲김호섭 ⑧중앙대교수
- ▲조항원 ⑦교보생명이사

◇家政大學

- ▲김찬주 ⑧인천대교수
- ▲정영선 ③한국다문화연구소

◇看護大學

- ▲김금순 ②서울대교수
- ▲엄미란 ②성신간호전문대

◇經營大學

- ▲이영복 ⑦선경건설총무부장
- ▲최석원 ⑦LG실트론이사

◇工科大學

- ▲박용철 ④장원주유소회장
- ▲심원택 ④오류농장회장
- ▲강성원 ④성진기업사장
- ▲전국렬 ④유신설계공단회장
- ▲강기성 ③(주)해강고문
- ▲강명수 ⑥삼안건설부사장
- ▲강병호 ⑥대우기획조정실
- ▲공영호 ⑥현대건설부사장
- ▲곽상영 ⑤고려산업개발회장
- ▲구영창 ②변리사
- ▲구창남 ④KHK CO. 사장
- ▲권기태 ⑥한라건설사장
- ▲권수웅 ②인천제철부사장
- ▲김광교 ⑥한국DNS사장
- ▲김규갑 ⑥협성실업사장
- ▲김기문 ⑥한서화학사장
- ▲김덕수 ⑤장천화학공업사
- ▲김병진 ⑤대림ENG부회장
- ▲김보웅 ⑥쌍용양회전무
- ▲김성중 ⑥디.케이.테크사장
- ▲김세근 ④前서울기계공고
- ▲김승곤 ⑤금호전기사장
- ▲김영희 ③선문학원이사장
- ▲김윤규 ③대창공업부사장
- ▲김윤규 ⑥현대건설부사장
- ▲김정만 ⑥효동개발사장
- ▲김종근 ③범아건축사장
- ▲김종욱 ⑥동양섬유공업사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 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본회는 그동안 동문여러분의 소
중한 정성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
을 비롯해 교수연구비, 모교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김종진 ④포항종합제철사장
- ▲김창현 ⑥신화건축대표이사
- ▲김태문 ⑤(주)유공감사
- ▲김태희 ⑥인덕터썬코리아
- ▲김학제 ⑥변리사
- ▲김항근 ⑤유니웰상사회장
- ▲김형전 ⑤남흥건설사장
- ▲김효철 ④서울대교수
- ▲김희준 ⑦대우루마니아지사
- ▲나종택 ⑤삼광스틸사장
- ▲노준연 ⑤공화버스상무
- ▲문우택 ⑥두원정공연구소장
- ▲박동정 ⑤전우개발용역고문
- ▲박동철 ⑥모토로라코리아
- ▲박민남 ⑥동아건설상무
- ▲박상호 ⑤前LG고문
- ▲박성현 ⑥서울대교수
- ▲박승엽 ⑤한영전자회장
- ▲박익식 ⑥종합건축사무소
- ▲박익현 ⑤삼경건설사장
- ▲박재면 ⑥현대건설회장
- ▲박정욱 ⑦한국안전시스템
- ▲박종률 ⑤유공가스사장
- ▲박찬규 ⑥현대건설부사장
- ▲배기은 ⑤화진테크크로회장
- ▲백영학 ⑤전자통신연구원
- ▲변승봉 ⑥한국전기연구소장
- ▲서상기 ⑦한국기계연구원장
- ▲석해호 ⑦대한감정평가법인
- ▲성기영 ⑤풍영화공사장
- ▲성기웅 ⑥대림산업사장
- ▲성기초 ⑤충남도시가스
- ▲성연찬 ⑥일진기업사장
- ▲송억영 ⑥도화기술공사
- ▲송영준 ⑥동화어드밴티스트
- ▲신동식 ⑤한국해사기술회장
- ▲신명환 ⑥동부건설부사장

- ▲신봉현 ⑥부리전기공업사장
- ▲안동원 ⑤(주)현상사사장
- ▲안사은 ⑥신안정밀사장
- ▲안승일 ⑤서해도서개발사장
- ▲양창국 ⑥한국전력공사처장
- ▲염도재 ⑥삼성중공업전무
- ▲여인희 ⑥오리엔탈종합전자
- ▲오성근 ⑥하나그룹사장
- ▲오원탁 ⑦삼성ENG
- ▲오철석 ⑤삼능건설상무
- ▲오화석 ⑤前철도전문대교수
- ▲유제신 ⑥해외기술개발상무
- ▲유채준 ⑤대한전선사장
- ▲윤 무 ⑥대림ENG상무
- ▲윤재석 ⑥A&D건설터트
- ▲이교일 ⑥서울대교수
- ▲이규석 ⑥두원공업사장
- ▲이기준 ⑥서울대교수
- ▲이길범 ⑤유일건축사무소
- ▲이동호 ⑤효성중공업고문
- ▲이범창 ⑥기아자동차부회장
- ▲이범호 ⑤한국종합ENG사장
- ▲이병휘 ⑤한국과학기술원
- ▲이상주 ③신공향건설공단
- ▲이상호 ⑦서호전기사장
- ▲이선우 ⑤호남석유화학전무
- ▲이재규 ⑤건축환경스페이스
- ▲이정목 ⑤대원기공사장
- ▲이정성 ⑤LG금속사장
- ▲이종호 ⑥삼호개발사장
- ▲이주범 ⑤쌍용자동차회장
- ▲이주선 ⑥제우기계사장
- ▲이중홍 ⑤경방기계사장
- ▲이창갑 ⑤연안대교수
- ▲이흥원 ⑦농장고사업부상무
- ▲임종엽 ⑤前LG통신고문
- ▲임종태 ⑤태양섬유상사사장

- ▲장건석 ⑤력기개발전무
- ▲장홍규 ⑤대림그룹부회장
- ▲전기명 ④크로바교역상사
- ▲전영환 ⑤前오주ENG고문
- ▲전춘생 ⑤인하대 명예교수
- ▲정문창 ④서해공업사장
- ▲정병일 ⑤풍원광업ENG
- ▲정성기 ⑥쌍용제지사장
- ▲정연승 ④삼성종합화학전무
- ▲정태수 ⑤태양FLUORO
- ▲정평근 ⑥경남모직공업이사
- ▲정형한 ⑤한국엔젤하드사장
- ▲조 만 ⑥서창건업전무
- ▲조규중 ⑤인하대 명예교수
- ▲조양래 ④(주)미광사장
- ▲조용수 ⑦현대석유화학전무
- ▲조일제 ⑤前영풍산업부회장
- ▲조태현 ⑦화승전자사장
- ▲주경재 ⑦건국대교수
- ▲지 순 ⑤간삼건축사장
- ▲지만식 ⑥대한석탄공사
- ▲채호석 ⑤협진정밀회장
- ▲천주훈 ⑥천주상사사장
- ▲최강희 ⑥철도기술협회
- ▲최동일 ⑥유공가스부사장
- ▲최승주 ⑥산도스동국사장
- ▲최재철 ⑤특허법률사무소장
- ▲최창환 ④창성금속사장
- ▲최철립 ⑦KIST고분자
- ▲한용호 ⑥대우건설부사장
- ▲홍만기 ⑥건축사무소장
- ▲홍성부 ⑥(주)신한회장
- ▲홍영희 ⑥한진건설전무
- ▲홍태선 ⑤한보철강공업사장
- ▲황정정 ⑥건축사무소장

◇農科大學

- ▲강영주 ③대양철콘사장
- ▲고흥철 ⑥대한생명보험전무
- ▲권오균 ⑥제주대교수
- ▲김만근 ⑤진로종합연구소장
- ▲김삼국 ⑤세창철강공업사장
- ▲김영달 ⑥산림청경역국장
- ▲김영진 ⑤한국유가공협회
- ▲문준웅 ③미음염료사장
- ▲박래경 ⑦농촌진흥청연구원
- ▲박영기 ⑦현대정공상무
- ▲백이호 ⑦서현건설사장
- ▲송보현 ⑥순천대교수
- ▲윤오섭 ⑥농지개발연구소
- ▲윤희진 ⑦다비육종사장
- ▲이병일 ③서울대교수
- ▲이상무 ⑦농림수산부국장

- ▲이정영 ⑥前서한화학부사장
- ▲이치섭 ⑥ROSI MEX CO.
- ▲이현수 ④선일포도당소장
- ▲임영목 ⑥공영토건전무
- ▲장상태 ⑥동국제강회장
- ▲전용화 ⑥前충남농촌진흥원
- ▲정무남 ⑦농촌진흥청국장
- ▲정봉수 ⑦신성산업사장
- ▲한갑준 ⑥삼주물산고문
- ▲한정길 ⑦(주)한농상무
- ▲한정남 ⑥(주)사니부사장
- ▲홍범기 ③신성화학사장

◇文理科大學

- ▲강만식 ⑤서울대교수
- ▲강일규 ⑤한국렌탈회장
- ▲곽만섭 ⑥산림청장
- ▲김 구 ③국동상공사장
- ▲김봉호 ④前속명여대교수
- ▲김상용 ④삼양사부회장
- ▲김성집 ⑤남정산업사장
- ▲김양일 ⑤인간능력개발원장
- ▲김용언 ⑥동서식품전무
- ▲김정태 ④대한상공회의소
- ▲김중규 ⑥건설방식기술
- ▲김중하 ④국회의원
- ▲김태길 ④서울대교수
- ▲김한웅 ⑤금융연수원위원장
- ▲김형오 ⑦국회의원
- ▲노규래 ⑥충남개발사업단장
- ▲노미혜 ⑥한국여성개발원
- ▲노원욱 ⑤변호사
- ▲문무홍 ⑦남북회담사무국
- ▲민정기 ⑥대통령비서관
- ▲박운서 ③통상산업부차관
- ▲박종규 ⑥한국특수선사장
- ▲배규한 ⑦국민대교수
- ▲배중섭 ⑥국회도서관장
- ▲변 형 ⑤세무대교수
- ▲서의규 ⑦국제강제사장
- ▲송철호 ⑥제일보철사장
- ▲오광규 ⑦한국방송공사부장
- ▲오영일 ⑥우일정공사장
- ▲유인태 ⑦국회의원
- ▲유지웅 ⑤前특허협회사무국
- ▲유현준 ⑤대한육상연맹
- ▲윤 식 ④산업연구원
- ▲이건학 ⑤부산병무청장
- ▲이두중 ⑤양영회이사장
- ▲이병재 ④대동브레이크사장
- ▲이병화 ⑥삼주전기전무
- ▲이수정 ④前문화부장관
- ▲이승윤 ⑤국회의원
- ▲이여령 ⑤前문화부장관
- ▲이정석 ④방송위원회위원
- ▲이종규 ⑥쌍용정공사장
- ▲이종하 ⑦한국방송공사부장
- ▲이주천 ⑤한국과학기술원
- ▲이한빈 ④前부총리
- ▲이현조 ⑦LG전자회장
- ▲임태순 ⑥남북회담사무국
- ▲정성목 ⑦의왕고려병원
- ▲정연하 ⑥하일물산사장
- ▲정조영 ④과학기술단체연합
- ▲조동현 ③前유성건설산업
- ▲조세형 ⑤국회의원
- ▲최경락 ⑦의환銀문래동지점
- ▲최규영 ⑥한국경제신문사
- ▲최병익 ③대한생명보험



“10월 네째 일요일에 동그라미하세요”

정겨운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고 가을의 흥취가 뿜어내는 풍기는 관악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오는 10월22일은 총동창회 주최 모교 방문 및 등산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푸짐한 먹거리와 경품, 그리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도 준비돼 있습니다.

지녀에게는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멋진 이 가을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승부④노동부차관
▲최재원⑥국영유리공업사장
▲한갑수⑥한국가스공사사장
▲현영원④현대상선회장
▲홍두승②서울대학교수
▲홍두표①한국방송공사사장
▲홍사덕③국회의원
▲홍영대⑦동우실크사장
▲홍중화①홍원제지사장
▲황정현②전국경제인연합회

◇美術大學

▲김진태⑦대구교대교수
▲손학옥⑦단국대교수
▲이열도①성균관대교수
▲이종상③서울대교수

◇法科大學

▲김종건④변호사
▲강경식①국회의원
▲강구현⑦현대건설부장
▲강만수⑥재정경제원실장
▲강문중⑦부산고법부장판사
▲강신욱①국회의원
▲강신원⑦변호사
▲강우혁②국회의원
▲강재모⑥동남은행이사
▲강현안⑦부산고법판사
▲강흥구⑧변호사
▲강홍주②변호사
▲강홍석④산업은행부장
▲강희철⑦변호사
▲고광우③변호사
▲고문승③제주전문대교수
▲고현석③한국자동차보험
▲곽노준⑦변호사
▲곽중훈⑦서울고법판사
▲권남현⑦광주고법부장판사
▲권오윤⑥(주)제양사장
▲권택수⑦서울지법북부지원
▲김경철⑥변호사
▲김관재⑦광주지법순천지원
▲김광준⑥전영통상사장
▲김광희③동아증권사장
▲김기춘②KBO야구위원회
▲김기택⑦신일상역사장
▲김내권⑤아이테스통신사장
▲김명진⑦대전지검부장검사
▲김문환⑥국민대교수
▲김봉수⑦한국산업증권부장
▲김상기⑦광주고법부장판사
▲김석휘⑦변호사
▲김선욱⑥공정거래위원회
▲김성주⑥(주)시즈부사장
▲김시형②산업은행총재
▲김양배③아세아종합금융
▲김영수④청와대민정수석
▲김영진⑦대검찰청
▲김영훈⑥前한국조세연구원
▲김영훈⑦대성그룹부사장
▲김용철⑤변호사
▲김용환⑤국회의원
▲김의재②서울시청실장
▲김익하④변호사
▲김인호⑥철도청장
▲김정곤④한도ENG상사
▲김종식⑦경기는행부장
▲김중웅④현대경제사회
▲김진우⑤헌법재판소재판관
▲김진호⑥한전남인천지점
▲김찬진③변호사
▲김창기⑥중소기업은행
▲김태준⑥수출보험공사사장
▲김학용⑥경남기업사장
▲김학원⑦변호사
▲김형배⑤동부그룹회장
▲김형선⑥대법원대법관

▲남택동⑦선경인더스트리
▲노승행③변호사
▲노이현②중소기업은행
▲노형권⑤전국은행연합회
▲목요상①변호사
▲문복주⑦구로등기소장
▲문정두④변호사
▲문태길⑤변호사
▲박동수⑥한국은행감독원
▲박두용⑥제일증권사장
▲박연시⑦前제일은행
▲박용수⑦부산지법부장판사
▲박정서①변호사
▲박재윤⑤동양시멘트공업
▲박종덕①대우건설부사장
▲박중용⑦국회의원
▲박종현③(주)삼양사전무
▲박종환⑦서울지검검사
▲박철근⑤영일화학사장
▲박태서⑤제일산업개발회장
▲배경숙④인하대교수
▲배상오⑤충남대교수
▲배억만⑤한일홍산사장
▲백충현①서울대교수
▲변정일④국회의원
▲서상희⑦삼성물산이사
▲서익원②변호사
▲서정신②변호사
▲서종원⑤외환은행강릉지점
▲설동훈①변호사
▲소진철⑤원광대교수
▲손경식①제일제당회장
▲손석주①M&R사장
▲송기방③변호사
▲송용식⑤한국지역정책
▲신국환③한전경영담당고문
▲신동환②최신물산회장
▲신원식①태양연마사장
▲신창동①변호사
▲심광수③산업은행이사
▲안길룡⑦동양증권사장
▲안명기⑤변호사
▲안번일⑤국방대학원이사관
▲안병수④변호사
▲안용득③대법원대법관
▲양영⑥한진기획실이사
▲양수일⑥경남은행서울지점
▲양인석③제일은행사료실장
▲엄낙용⑦재정경제원소장
▲여대도③외환은행
▲오세희⑥한국홈쇼핑사장
▲오행남⑦변호사
▲유시권③한국조세연구원
▲유인의⑤변호사
▲윤동민⑦수원지검성남지점
▲윤성현④선경건설전무
▲윤우정⑦변호사
▲윤형로④(주)파고다사장
▲이원⑥특허청차장
▲이경하⑥한국관광공사
▲이관홍⑥한국은행자문역
▲이범재②용인인터내셔널
▲이병석⑤식품개발연구원
▲이상렬③삼성그룹상임고문
▲이상형⑦법무부공보관
▲이석현⑦국회의원
▲이석형⑦변호사
▲이세복⑥나드리화장품전무
▲이수진②대한전기협회
▲이시윤⑤감사원장
▲이용우⑦변호사
▲이욱재⑦스키장사업협회
▲이임수④대법원대법관
▲이재호⑦쌍용투자증권상무
▲이재화⑤헌법재판소재판관
▲이종기⑦변호사
▲이주영⑦변호사

▲이지수⑤상업은행이사
▲이창희⑦한국은행기획부
▲이택기⑤대명파크사장
▲이한경⑥국민은행저축부장
▲이한동⑤국회의원
▲이해원⑤한국우드위드사장
▲이흥구⑤국무총리
▲이흥구⑥동원창업투자
▲이흥기⑦수원지법성남지원
▲임규오⑤변호사
▲임상현③변호사
▲임창원⑥변호사
▲장기택⑥쌍용중공업전무
▲장재식⑤국회의원
▲전도화⑤우성프라스틱사장
▲전충환②변호사
▲정기옥⑥송화가구판매사장
▲정대권⑦변호사
▲정문화⑤한국지방행정
▲정재형③조흥은행서본부
▲정지형②서울지법법원장
▲정호보①(주)풍산사장
▲정희준③중소기업은행
▲조연⑤변호사
▲조동주⑦신한기획사장
▲조순형④국회의원
▲조용국⑥부산지검동부지점
▲주성민⑦변호사
▲채재억①중소기업진흥공단
▲최대유⑤코스탈파워사장
▲최두형⑤성원개발회장
▲최명선③대전고검고검장
▲최병석①(주)동성사장
▲최상룡⑥범양식품상무
▲최상태④서울경제신문사
▲최원빈⑦前경생보호회
▲최원현⑦변호사
▲최종영②법원행정처장
▲최주곤⑤변호사
▲하성대②前세방그룹검사
▲한경구⑤유진상사사장
▲한영석①변호사
▲한용구⑦법무사
▲한주상⑦대검특수감전무
▲홍성만⑦변호사
▲홍진태⑥마포케이بلTV
▲황규연⑤동화약품부사장
▲황길수⑤변호사
▲황병인⑤공무원연금공단

◇師範大學

▲권경주⑤前배화여중교사
▲길우석①삼지화성전무
▲김대행⑤서울대교수
▲김용길①경기대교수
▲김인환②태흥건설사장
▲김준언④체육교역사장
▲남정걸⑤단국대교수
▲민영업⑥석관고교장
▲박병양④부산대교수
▲박인국⑦동국대교수
▲박한식③前한국교원대교수
▲신현식⑥도곡중교장
▲신희남⑦대원중교장
▲안희수⑤서울대교수
▲오수량⑥서울시교육청
▲육선화⑦서울대교수
▲유경근②서울산업대교수
▲이봉현⑥관악고교장
▲이혁환⑥연세대교수
▲이장호⑤前반포중교장
▲이종학④서울정공사장
▲이춘구⑤숙명여대교수
▲이희용④진일특수화학공업
▲정주섭⑦은석고교장
▲조이남⑤금융결제원부장
▲지동수⑥정신여고교장

▲최기림⑤상림기업사장
▲홍성한⑤서인천고교장
▲홍학순⑦한성과학고교장
▲황석근⑤잠실고교장
▲황철수①前민주평통자문회

◇商科大學

▲김종대④대전피혁공업회장
▲조원기④회계사
▲갈정웅⑦서울증권상무
▲강보원④한외종합금융
▲강진우⑥롯데백화점사장
▲고일성⑤동진인터내셔널
▲구영치⑥조흥은행이사
▲권영진④신한은행감사
▲권오학⑥임광토건부사장
▲권혁태⑦서울가든사장
▲김기중①경방사장
▲김동철⑤제일은행상무
▲김배철⑤건설강업회장
▲김성규③경남모직사장
▲김수필⑥한국이동통신전무
▲김연조②외환신용카드회장
▲김영근⑤신한창업투자감사
▲김영대⑦한국은행이사
▲김영환⑤대경산업회장
▲김윤재⑤한국안전유리사장
▲김윤환⑥고려검정사장
▲김인기⑤前삼정석유사장
▲김정웅④前대전엑스포
▲김종국⑤보람은행상무
▲김종덕⑤제일은행전무
▲김종욱②(주)전방부회장
▲김재경⑤국회의원
▲김천식④서울문교사장
▲김학덕⑤(주)유공부회장
▲김흥구⑦두산건설전무
▲남상백⑤경주종합금융사장
▲남윤우⑥삼성투자자문사장
▲남정우⑥삼성신용카드사장
▲노광표⑦한국담배인삼공사
▲노영구②산업은행부총재보
▲명동근②명성건설회장
▲문대원⑦코리아제록스
▲민상기⑦서울대교수
▲민형근⑤충북은행장
▲박근준⑥대한제당사장
▲박수환⑤LG상사사장
▲박승일⑥한국코닥회장
▲박영일③정보통신부국장
▲박영조⑤한국HOYA LENS
▲박용이③제일은행상무
▲박재운③통상산업부장관
▲박정식③동일레나운부사장
▲배준직⑥국민은행
▲백종현⑤서강대교수
▲서승원⑦회계사
▲설원량⑤대전선회회장
▲성하현③한국국토개발사장
▲손상모⑦한국전략경영사장
▲손수일⑤산업은행이사
▲송삼석②(주)모나미회장
▲심재선④태산신용금고사장
▲안명수④하나은행상무
▲안병국⑥선창산업전무
▲안영목⑥새한상호신용금고
▲안재원⑤동일니트사장
▲안태호③물류관리협회
▲어준④서경통상사장
▲엄일영⑦동서경제연구회장
▲여현동②서울은행상무
▲오준희④코오롱그룹실장
▲우봉현⑤가호상사사장
▲우찬목⑤조흥은행장
▲원용훈⑦대림통상사장
▲위성복④조흥은행상무
▲유무성⑥삼성항공부사장

▲윤승두④前증권거래소
▲윤여탁⑥브링스코리아
▲윤영석④대우중공업회장
▲이건재⑥오정약품사장
▲이기용③국민신용카드사장
▲이덕훈⑦홍농중요사장
▲이병규⑦한국은행지도국장
▲이상운⑤前세방기업부사장
▲이상철⑥전국은행연합회
▲이상학③텍스타일사장
▲이수익⑤동진개발사장
▲이승구⑤예림인터내셔널
▲이영택④대한사이로사장
▲이일채⑤대우건설사장
▲이전배⑦전원산업사장
▲이종연⑥조흥증권회장
▲이준용⑥동아제분회장
▲이재득⑤선창산업사장
▲이철수⑤제일은행장
▲이태식⑦제일생명사장
▲이희수③(주)경월사장
▲임재주⑤국제청차장
▲장경길⑥대우증권이사
▲장덕신⑦대우전자부품부장
▲장소익③우일상사회장
▲전영호①前KBS문화사업단
▲전창수①한진종합건설사장
▲조문규①동화기업상무
▲조문제⑤무림제지부회장
▲조원래⑥대한제쇄공업사장
▲조창제④외환은행상무
▲지치본②충청은행상무
▲진철평③뉴코리아진흥사장
▲차형동①쌍용그룹감사실장
▲최철③효신콘크리트회장
▲최상길⑤외환은행영업부장
▲최성태⑥제주그랜드호텔
▲최정환⑤우성식품사장
▲최해은⑤성도건설회장
▲최홍락①양재경영연구소
▲추한식③마산시민버스사장
▲한기철⑤코스모스악기
▲한병무⑤삼화화료사장
▲허홍①대동은행장
▲허병하②우신시스템사장
▲홍두표⑤현대자동차전무
▲홍승후③한진중공업부사장
▲홍영기①부국사료사장
▲황창기③국가경영전략
▲황창학⑤(주)한진사장

◇獸醫科大學

▲강두완③강두완동물병원
▲김배원④녹우공업사장
▲김오섭⑦아카데미빌딩대표
▲박종영⑤중앙케미칼부사장
▲박춘병⑦매일유업이사
▲윤지병⑤가축전염병연구소
▲장병표⑦삼화동물약품사장
▲정진화⑤서울가축병원원장
▲조명래⑦갈촌동물병원원장

◇藥學大學

▲김상렬④안국컴퓨터회장
▲고형훈③고일약국
▲곽효성⑦종근당이사
▲권오택④천지당약국
▲권창호①경희대교수
▲김기주②유유후마킬라사장
▲김성근⑤독일약국
▲김영호⑥대림시계사장
▲김윤종⑦마성상사사장
▲김진우③신림당약국
▲남창우⑥영림상사사장
▲박경렬⑦유성약국
▲박승규③장수약국
▲신국현②서울대교수

▲윤홍중⁵⁹금강약국
▲이계관⁷⁰환인제약전무
▲이명배⁶⁵성신약국
▲이상섭⁵⁴서울대교수
▲이성태⁶⁴신중제약상무
▲이정석⁷⁹보건복지부사무관
▲이종호⁵⁹화타약국
▲정미화⁶³백제약품관리약사
▲정진협⁷⁵대은약국
▲지상구⁵⁸우진양행사장
▲최건학⁷⁴중외제약연구소장
▲최윤환⁶⁰진양제약사장
▲최현식⁶⁴중외제약부사장
▲하성호⁵⁸근지암약국
▲허백⁵⁷서울약국

◇音樂大學

▲김만복⁴⁸前숙명여대교수
▲백병동⁶¹서울대교수

◇醫科大學

▲송규현⁴⁴동인의원
▲이동훈⁴¹前부산대교수
▲강형룡⁴⁸강내과의원
▲엄영섭⁴⁸엄소아과의원
▲이은태⁵⁰이은태외과의원
▲고건성⁷⁴고이비인후과의원
▲고원순⁷⁴정형외과의원
▲김양⁷⁴서부병원정형외과
▲김관영⁵⁹상계백병원
▲김병규⁵¹서울의원
▲김병찬⁶⁰한라병원
▲김상우⁶⁸백병원소아과
▲김성덕⁷¹서울대병원마취과
▲김수신⁷⁵김수신성형외과
▲김승욱⁵⁶서울대산부인과
▲김영홍⁵⁵김영홍외과의원
▲김예원⁷⁷김예원내과의원
▲김용락⁶⁶서울대병원마취과
▲김종선⁶⁶서울대이비인후과
▲김종희⁵⁶회생의원
▲김주현⁷¹서울대흉부의과
▲김진복⁵⁸서울대일반외과
▲박양실⁶⁰박산부인과의원
▲박영원⁷⁶이비인후과의원
▲박영태⁷⁶고려대구로병원
▲박재형⁷⁸서울대방사선과
▲박효일⁶⁶백병원신경외과
▲서경필⁵⁷서울대소아진료부
▲손근찬⁵⁸단국대부속병원
▲송익훈⁵⁴마산고려병원
▲신동렬⁵³신동렬안과의원
▲신창재⁷⁸서울대산부인과
▲심완섭⁷⁰제일안과의원
▲안문성⁷⁸이비인후과의원
▲양승렬⁵⁷신경외과의원
▲엄길순⁷³안홍부의과의원
▲원치규⁵⁹한양대교수
▲윤용수⁷¹서울대병원소아과
▲윤해근⁷⁶윤중의원
▲이영⁶³한강성심병원
▲이철⁷³서울중앙병원
▲이경희⁷²시립보라매병원
▲이계평⁶⁵이외과의원
▲이동렬⁴⁹이내과의원
▲이상⁷⁰이상용내과의원
▲이원표⁷⁸이원표내과의원
▲이재현⁵⁷경희대산부인과
▲이정길⁷⁰이정길소아과의원
▲이종표⁵⁹제일의원
▲임남재⁶³임소아과의원
▲전순영⁷¹전순영정형외과
▲정문상⁷¹서울대정형외과
▲정진택⁵⁰정외과의원
▲최황⁶⁹서울대비뇨기과
▲최충신⁶⁷정형외과의원
▲한기호⁶¹한외과의원

▲한대희⁶⁷서울대신경외과
▲한명렬⁵¹한일의원
▲한승수⁶²한일병원
▲함의근⁵⁸서울대병원병리과
▲홍영표⁵⁸대한결핵협회

◇齒科大學

▲김인수⁵¹동산치과의원
▲강구한⁶⁵강구한치과의원
▲강성현⁷⁵강성현치과의원
▲강준설⁵⁸강치과의원
▲구옥경⁶⁸구옥경치과의원
▲구창서⁶⁰구창서치과의원
▲김성⁶⁶김성치과의원
▲김경애⁶¹김경애치과의원
▲김규진⁷⁰김규진치과의원
▲김동자⁵⁶명동치과의원
▲김병기⁶⁷김병기치과의원
▲김봉호⁶⁰김봉호치과의원
▲김상숙⁷⁷김치과의원
▲김성수⁷⁴김성수치과의원
▲김소현⁵⁸김소현치과의원
▲김왕국⁵⁹김왕국치과의원
▲김종원⁶¹서울대교수
▲김종철⁷⁷서울대교수
▲김종철⁶⁶세종치과의원
▲김창원⁷⁵김치과의원
▲남동석⁶⁵서울대교수
▲남승우⁶⁹남부치과의원
▲민병덕⁷⁰청산치과의원
▲민병일⁵⁶서울대교수
▲박석주⁸⁰박석주치과의원
▲박주호⁶⁴제일치과의원
▲부삼환⁶⁴부삼환치과의원
▲서현종⁷⁸서현종치과의원
▲손한기⁷³고려병원
▲신영기⁸⁰신영기치과의원
▲양원식⁶¹서울대교수
▲유형식⁶⁵유치과의원
▲이범권⁶¹이범권치과의원
▲이수구⁷²이치과의원
▲이순표⁶⁵이순표치과의원
▲이승환⁶⁶이승환치과의원
▲이용우⁶⁸계명대교수
▲이정호⁶⁶이정호치과의원
▲이종수⁵⁶이종수치과의원
▲임성균⁶⁵임성균치과의원
▲임철중⁶⁷임철중치과의원
▲정건용⁵⁷정치과의원
▲최승은⁷⁰최승은치과의원
▲홍경택⁷¹홍치과의원
▲황규선⁶⁰황규선치과의원
▲황오현⁵⁵황오현치과의원

◇大學院

▲김응진⁴⁹을지병원의무원장
▲남덕우⁵⁶산학협동재단회장
▲유석진⁴⁹베드로신경과원장
▲윤재한⁶²서울대교수
▲이수곤⁶⁶전남대교수

◇經營大學院

▲김광득⁷⁰해운항만청차장
▲김홍식⁷¹금북주회장
▲백대기⁷³충북대교수
▲이만상⁶⁷대영볼트사장
▲이윤수⁶⁸대한연료인회이사
▲최성중⁶⁷화성기업회장

◇教育大學院

▲김충언⁶⁹서울시교육청

◇保健大學院

▲문희자⁷³경희대교수
▲손경애⁷⁶성모의원원장
▲심영섭⁷⁴환경처자원폐기물
▲최용어⁶⁷한국체육대교수

◇司法大學院

▲김종구⁶⁶법무부차관
▲오복동⁶⁴변호사
▲이원성⁶⁷대검찰청수사부장
▲주광일⁷⁰인천지검검사장

◇新聞大學院

▲강대근⁷⁶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박정순⁷³경북대교수
▲조용직⁷⁰국회의원

◇行政大學院

▲고충삼⁶⁵대한항공부사장
▲김반용⁷⁰동국대교수
▲김성규⁷²대한체육회차장
▲김주봉⁷⁷공항공단이사장
▲백낙준⁶⁴뉴국제호텔부회장
▲신기악⁶⁶(주)세풍부사장
▲연기호⁷⁰연홍아세아사장
▲윤일균⁶⁹대한항공협회장
▲전준환⁶⁹변리사
▲정호택⁶¹변호사
▲조성근⁶¹대한건설진흥회

◇環境大學院

▲박상우⁷⁵국토개발연구원
▲윤화일⁸⁰주택은행조사부장
▲이재근⁸⁰한림종합건설전무

일 반

◇人文科學大學

▲국은주⁸⁷ ▲김영두⁸⁷
▲김영민⁸⁹ ▲박현철⁸⁶
▲안병근⁸⁶ ▲이기현⁸⁴
▲정대진⁸⁶ ▲조운신⁸⁷
▲최민⁸³

◇社會科學大學

▲김광덕⁸⁶ ▲김대중⁸⁸
▲김병준⁸⁶ ▲김영권⁸⁹
▲김홍수⁸⁹ ▲민광섭⁸⁸
▲박경욱⁸⁶ ▲박철희⁸⁶
▲백형기⁸⁶ ▲서돈영⁶⁷
▲윤석구⁸⁸ ▲이우현⁸⁴
▲이진수⁸⁹ ▲이철희⁸⁸
▲정태석⁷⁷ ▲조한욱⁸⁸
▲채운⁸⁵ ▲최현⁸⁹
▲최상규⁸⁶ ▲최원익⁷⁸
▲최재호⁸⁹ ▲최학철⁸⁹
▲한건석⁸⁵ ▲한인택⁸⁶
▲홍석진⁷⁸

◇自然科學大學

▲강현⁷⁸ ▲김한철⁸⁸
▲노혜림⁸⁴ ▲박찬순⁷⁶
▲송세안⁷⁹ ▲안창남⁸⁶
▲이창현⁸⁹ ▲이학주⁷⁸
▲전세화⁸⁹ ▲전용호⁷⁹
▲정선희⁸² ▲정원교⁷⁷
▲최익규⁹⁴ ▲최중수⁸⁹

◇家政大學

▲공인숙⁸⁰ ▲김성희⁷³
▲남궁행⁷⁵ ▲신은철⁷⁷
▲이원희⁶⁶ ▲이진영⁷⁷
▲최난희⁸⁷

◇看護大學

▲박은선⁵⁷ ▲전봉선⁵⁸

◇經營大學

▲노재현⁸⁸ ▲박상규⁸⁶
▲신철호⁸⁶ ▲이세용⁸⁹
▲이종인⁷⁷ ▲임준효⁸⁵

▲장욱⁷⁸ ▲장영철⁶⁰
▲전홍⁸⁷ ▲정수용⁶⁹
▲최병두⁷⁸

◇工科大學

▲이덕기⁴³ ▲최재봉⁴²
▲민병찬⁴⁶ ▲은준표⁴⁹
▲이규재⁴⁷ ▲이삼형⁴⁹
▲이선우⁴⁹ ▲주희전⁴⁷
▲강대영⁶⁶ ▲강무치⁷¹
▲고대중⁶⁸ ▲고희영⁷⁶
▲곽동수⁵⁷ ▲곽태현⁷³
▲권경식⁷⁰ ▲김용⁶⁸
▲김경식⁵² ▲김광명⁶²
▲김광웅⁵⁶ ▲김대은⁸⁹
▲김도수⁷² ▲김동원⁸³
▲김두훈⁸² ▲김명환⁷³
▲김석준⁷³ ▲김석철⁶⁶
▲김세영⁷⁴ ▲김여근⁷⁶
▲김영걸⁶³ ▲김영운⁶⁶
▲김영훈⁷² ▲김용태⁶⁷
▲김원일⁶⁷ ▲김원태⁶⁹
▲김운환⁶⁴ ▲김응경⁵⁶
▲김재필⁸⁴ ▲김종식⁷⁷
▲김종완⁸⁷ ▲김종의⁶⁵
▲김종호⁶⁴ ▲김지상⁸⁵
▲김진무⁶⁹ ▲김진원⁷²
▲김채원⁶⁷ ▲김철우⁸³
▲김철하⁶³ ▲김태성⁶⁶
▲김한중⁷² ▲김형모⁵⁸
▲김환기⁶⁶ ▲노광⁸¹
▲노근식⁶⁹ ▲노연상⁷⁴
▲박철⁶⁴ ▲박철⁸⁷
▲박규원⁷³ ▲박기도⁶⁷
▲박기웅⁶⁶ ▲박노상⁶¹
▲박동재⁶⁵ ▲박신석⁸⁹
▲박신지⁶⁴ ▲박엽규⁸⁷
▲박용운⁶³ ▲박우상⁵⁹
▲박이관⁶² ▲박재룡⁷²
▲박재학⁷⁶ ▲박찬정⁷⁷
▲반기문⁷⁰ ▲배봉휘⁶⁷
▲백기남⁷² ▲백남주⁵²
▲백효석⁶⁶ ▲변재완⁸³
▲서대웅⁹² ▲서명환⁸³
▲서석철⁵⁸ ▲서완석⁶⁴
▲서용권⁷⁴ ▲서필수⁷⁵
▲서현석⁸⁹ ▲손중권⁷⁵
▲신동주⁷⁶ ▲신영수⁷⁸
▲신충선⁸⁹ ▲신태형⁸⁵
▲안창순⁶⁷ ▲안희영⁸²
▲양민영⁶⁷ ▲양윤홍⁷⁰
▲엄태우⁶⁷ ▲여민중⁸⁶
▲오택길⁷⁰ ▲유기형⁷¹
▲유승용⁶⁴ ▲유영창⁸⁰
▲유용석⁷² ▲유지호⁸⁷
▲윤극로⁷¹ ▲윤만중⁶⁶
▲윤석중⁷⁰ ▲윤재량⁶⁶
▲윤재홍⁶⁵ ▲윤주영⁸⁷
▲이훈⁶⁶ ▲이경훈⁶⁵
▲이광복⁶⁰ ▲이근욱⁸⁸
▲이남구⁷⁹ ▲이동수⁸¹
▲이민철⁷¹ ▲이병수⁶²
▲이병호⁸⁷ ▲이보호⁶¹
▲이상구⁸⁵ ▲이상순⁷⁰
▲이성환⁸⁹ ▲이수훈⁸¹
▲이순병⁷² ▲이승우⁶³
▲이승호⁷¹ ▲이영일⁶³
▲이영준⁵⁷ ▲이예승⁸⁸
▲이완영⁷³ ▲이우운⁶²
▲이운정⁸⁸ ▲이은우⁶⁵
▲이의원⁷² ▲이인태⁵⁷
▲이재욱⁶⁵ ▲이재환⁷⁰
▲이재홍⁷⁵ ▲이정남⁶²
▲이종권⁵¹ ▲이종영⁷⁹
▲이준희⁶⁹ ▲이창대⁶⁷
▲이택식⁴⁸ ▲임두호⁷⁶
▲임만직⁶⁰ ▲임상전⁵²

▲임상진⁷⁴ ▲장태호⁶¹
▲진병환⁶² ▲전영국⁶⁰
▲정광욱⁶⁰ ▲정병하⁷⁶
▲정용태⁶³ ▲정찬수⁷²
▲조맹영⁶⁴ ▲조복래⁸²
▲조현기⁵⁹ ▲차진수⁵⁶
▲최동욱⁶⁵ ▲최성배⁸⁶
▲최영태⁵⁶ ▲최완철⁷⁷
▲최종근⁸⁹ ▲최종명⁷⁹
▲한도석⁸⁵ ▲한수양⁷¹
▲허주⁶⁹ ▲홍성수⁸⁴
▲황광웅⁶³ ▲황희양⁷³

◇農科大學

▲이종화⁴⁰ ▲이종록⁴⁹
▲구본길⁶⁷ ▲권종석⁸⁴
▲김구용⁷⁶ ▲김동준⁵⁷
▲김득래⁵⁵ ▲김삼기⁶⁵
▲김상조⁷⁹ ▲김영기⁵⁸
▲김유신⁶⁴ ▲김용경⁶³
▲김일종⁷³ ▲김일희⁵⁶
▲김재권⁵² ▲김재진⁶⁵
▲김정표⁷⁵ ▲김진목⁵⁹
▲김태선⁸² ▲김현영⁶⁵
▲김희장⁶⁵ ▲박남종⁵⁹
▲박영인⁶² ▲박진구⁸⁸
▲박희창⁵⁵ ▲서응원⁷⁸
▲송기종⁶² ▲송지현⁷³
▲신건철⁶³ ▲신희현⁸⁹
▲심상후⁸⁹ ▲안치영⁵⁷
▲안준식⁸⁹ ▲오학영⁶¹
▲왕인근⁵⁵ ▲우무일⁶⁸
▲유성곤⁶⁷ ▲유회기⁴⁹
▲윤희진⁷³ ▲이기순⁷³
▲이만복⁶⁰ ▲이비용⁸⁶
▲이재완⁷⁵ ▲이태영⁵⁸
▲장윤환⁶⁰ ▲정병기⁵⁷
▲정정택⁷⁸ ▲정선용⁶³
▲조남효⁸¹ ▲조종수⁷⁰
▲주명준⁶⁶ ▲진용수⁸⁸
▲최무재⁵⁹ ▲한춘연⁵⁶
▲홍덕표⁷⁸ ▲홍재희⁶²

◇文理科大學

▲강기진⁷⁰ ▲강신규⁵⁶
▲강신혁⁷³ ▲강윤석⁶⁵
▲권동석⁶² ▲권순자⁵⁹
▲권영래⁷¹ ▲김남진⁶⁵
▲김병진⁷³ ▲김부남⁷⁰
▲김상옥⁷² ▲김성기⁶⁷
▲김세민⁷⁵ ▲김순태⁶¹
▲김시창⁶⁸ ▲김영문⁶⁹
▲김영삼⁵¹ ▲김영식⁶⁸
▲김영욱⁷⁴ ▲김재완⁵⁸
▲김진원⁵⁶ ▲김찬수⁶⁴
▲김철수⁶¹ ▲김한도⁶³

▲장문현⁶³ ▲전문휘⁵⁷
▲전성욱⁶⁸ ▲전주식⁷⁴
▲정동윤⁶⁵ ▲정승화⁷⁴
▲정운선⁶⁰ ▲정혁진⁷⁰
▲조병문⁶⁵ ▲조인수⁶⁸
▲주원택⁸⁵ ▲채명규⁶⁹
▲최석환⁵⁰ ▲최영식⁵⁶
▲최완철⁷⁷ ▲최종명⁷⁹
▲한수양⁷¹ ▲홍성수⁸⁴
▲황희양⁷³

▲이규성⁶³ ▲이도영⁶⁰
▲이명해⁶³ ▲이재현⁶⁵
▲임성기⁶³ ▲장인식⁶⁵
▲전재근⁶³ ▲정구순⁵⁵
▲정해웅⁶⁷ ▲조규하⁵⁸
▲조규향⁵⁷ ▲조재두⁵⁶
▲주은선⁶³ ▲주은성⁶³
▲최동우⁶⁵ ▲최시중⁶³
▲최용찬⁵⁹ ▲최홍룡⁶⁴
▲한명운⁵⁶ ▲한영희⁷⁵
▲홍종웅⁷²

◇美術大學

▲강신권⁸⁸ ▲고수길⁶⁴
▲김현⁷⁸ ▲김영태⁶⁶
▲김청자⁶⁵ ▲나경문⁵⁶
▲남경숙⁵⁴ ▲노정민⁸⁹
▲안동숙⁴⁸ ▲이경옥⁶⁸
▲이귀향⁵⁶ ▲이용국⁶⁵
▲이혜인⁶⁸ ▲임정순⁷⁶
▲조재연⁸¹ ▲최지자⁶⁷

◇法科大學

▲김관수⁴¹ ▲박지영⁴¹
▲조한룡³⁹ ▲김기엽⁴¹
▲박동운⁴⁴ ▲강성태⁶⁸
▲강재철⁶¹ ▲강형춘⁶⁸
▲공도식⁶² ▲공천오⁶⁹
▲구남수⁶⁵ ▲권영세⁶⁴
▲김국진⁶⁵ ▲김근대⁶⁷
▲김명수⁵⁷ ▲김상진⁶²
▲김세충⁷⁶ ▲김용기⁵⁶
▲김용포⁶⁵ ▲김위수⁶⁶
▲김윤수⁵⁷ ▲김인겸⁶⁶
▲김재훈⁸⁰ ▲김중구⁶³
▲김진호⁸⁹ ▲김창국⁶⁰
▲김창지⁶⁰ ▲김창희⁶⁶
▲김현석⁸³ ▲김형두⁵⁶
▲노재관⁶¹ ▲박민환⁷⁰
▲박상천⁶⁰ ▲박영식⁵⁸
▲박정익⁸⁰ ▲박정호⁸⁹
▲박행용⁷⁴ ▲박현순⁷⁷
▲박희수⁷⁴ ▲백준현⁸²
▲서승완⁶⁴ ▲손태호⁸⁰
▲신건⁶³ ▲신경식⁸⁶
▲신윤식⁷⁷ ▲신호철⁶⁵
▲심병택⁶¹ ▲안동호⁴⁹
▲안승국⁸⁰ ▲안재홍⁸⁴
▲안종혁⁶¹ ▲어윤배⁵⁸

▲연기호55 ▲오지철73
▲원철희62 ▲유병규87
▲유정현66 ▲유호민67
▲윤순성70 ▲이준74
▲이경우55 ▲이관빈49
▲이광렬70 ▲이대순57
▲이법록60 ▲이순호83
▲이영구65 ▲이영규65
▲이영석85 ▲이영재54
▲이오영84 ▲이재철48
▲이전우60 ▲이창범57
▲이창복78 ▲이현영89
▲이호연64 ▲임승욱75
▲장영철62 ▲장태규80
▲정광우65 ▲정명호80
▲정진규69 ▲조경래55
▲조병환79 ▲조한창87
▲차광웅67 ▲최강섭82
▲최공웅62 ▲최귀인60
▲최대화65 ▲최재호63
▲최준호56 ▲한양석84
▲한영일61 ▲한정환87
▲허진호68 ▲홍기인59
▲황도연56 ▲황보영87

◇師範大學

▲김학준44 ▲유근숙33
▲이병구43 ▲정규두38
▲김규영44 ▲안채봉40
▲강영자65 ▲권균65
▲권경중73 ▲권진숙46
▲김인72 ▲김경애70
▲김광준67 ▲김교정58
▲김동길61 ▲김선식62
▲김영지65 ▲김정호73
▲김재영68 ▲남기병55
▲노영식69 ▲문영식77
▲박명학65 ▲박영배72
▲박영오70 ▲박장평65
▲박종덕93 ▲박형규56
▲배은재70 ▲백운채58
▲변희준62 ▲서성혁86
▲손경희70 ▲손흥빈56
▲신동순53 ▲신세영62
▲신용한65 ▲신태복55
▲신혜순51 ▲안창원87
▲양기석71 ▲오정세64
▲유재택73 ▲유환옥82
▲윤의순57 ▲이경숙87
▲이규식62 ▲이기중60
▲이남영70 ▲이덕봉67
▲이덕재66 ▲이두현60
▲이범훈61 ▲이복환77
▲이성범52 ▲이수찬56
▲이신규63 ▲이영호60
▲이우형53 ▲이재승71
▲이재혁65 ▲이종연60
▲이진영55 ▲이태준53
▲이형근84 ▲이혜선68
▲이호준64 ▲이후영68
▲임공희68 ▲임옥진62
▲장근호55 ▲전래수56
▲정두진82 ▲정상영52
▲정인상79 ▲정종률65
▲정종환62 ▲정진규65
▲정창오85 ▲정현철70
▲조철원59 ▲채쾌68
▲최병순74 ▲최순욱65
▲최창숙72 ▲하석호60
▲한상덕62 ▲한철규57
▲허현도56 ▲홍성호63
▲황혜복83

◇商科大學

▲박덕신33 ▲윤석한40
▲이상규30 ▲이상돈49

▲정종서49 ▲주덕화49
▲최의중48 ▲강상기57
▲권안식72 ▲권익성71
▲기병태57 ▲김동71
▲김택56 ▲김기현62
▲김선용72 ▲김수한60
▲김영식70 ▲김정훈54
▲김태규63 ▲나제택57
▲명영삼60 ▲문현상65
▲민수기66 ▲박노영65
▲박동요50 ▲박봉규64
▲박양규64 ▲박영대60
▲박영도64 ▲배창모64
▲서강무62 ▲서정욱65
▲석대정60 ▲손근홍70
▲송국현62 ▲신영일65
▲신영철57 ▲엄한섭66
▲오세주59 ▲우명환57
▲우순구57 ▲우의제67
▲유재한77 ▲유창희71
▲윤남렬68 ▲윤명상71
▲윤석하68 ▲윤재우65
▲윤흥구70 ▲이옥66
▲이기호55 ▲이노종76
▲이대영72 ▲이상락71
▲이세근70 ▲이세선62
▲이수인63 ▲이승우57
▲이영순71 ▲이윤달69
▲이정전71 ▲이종백73
▲이준복71 ▲이진명69
▲이창준57 ▲이한호60
▲임호윤72 ▲전영일75
▲정구현69 ▲정석철64
▲조규용57 ▲조성진61
▲진용무65 ▲채성기71
▲채수한60 ▲최덕근69
▲최윤철75 ▲최익재72
▲최진만69 ▲최진택65
▲한승희66 ▲함만준56
▲허남조71

◇獸醫科大學

▲구용희55 ▲김상렬53
▲김준삼59 ▲김환경53
▲변승호68 ▲변훈달55
▲소경택65 ▲신현덕84
▲오순민88 ▲윤영원70
▲이문한73 ▲이범선51
▲이재진64 ▲이정웅58
▲이종경79 ▲장원혁66
▲정자영88 ▲정진기56
▲정창국51 ▲정태규60
▲홍윤범65

◇藥學大學

▲이봉희38 ▲권한표49
▲김광일49 ▲이대희50
▲김근숙71 ▲김옥경87
▲김재환72 ▲김학균55
▲김홍중58 ▲김휘배65
▲박선근74 ▲박종호71
▲박준욱59 ▲반태환69
▲백우현59 ▲신복영76
▲염문경89 ▲유영필69
▲유한호64 ▲윤두석56
▲윤선렬55 ▲이계하76
▲이보경60 ▲이한배60
▲장정일70 ▲정진기57
▲최영자59

◇音樂大學

▲곽진용63 ▲고춘선73
▲권영주81 ▲김연희89
▲김용희85 ▲김효순65
▲노인경88 ▲박현선60
▲박현숙76 ▲서인선59

▲손국임68 ▲육영희68
▲이경희80 ▲이문경74
▲이미선86 ▲이옥엽67
▲이은호72 ▲정승영71
▲정은모55 ▲조명희69
▲조원경88 ▲최구혜65
▲최효열73 ▲한기세75
▲황현정87 ▲김영숙52

◇醫科大學

▲유준41 ▲강일권48
▲김진하47 ▲민중기47
▲강성섭76 ▲강진구65
▲강희륜59 ▲고경룡66
▲고명진70 ▲고영채80
▲권영소50 ▲김경덕79
▲김광철84 ▲김명숙65
▲김봉석89 ▲김성용85
▲김세열76 ▲김수진85
▲김순배84 ▲김송경54
▲김중훈85 ▲김철웅78
▲김태운52 ▲김현우60
▲김효수84 ▲노민84
▲동은실87 ▲문채구59
▲문형조61 ▲민병섭60
▲민영일65 ▲박종신89
▲박찬무47 ▲박혁석55
▲백태진80 ▲서유현73
▲서재현75 ▲신봉하56
▲신희중80 ▲양희우69
▲유영삼86 ▲이강욱89
▲이근후83 ▲이동환73
▲이정빈72 ▲이정신76
▲이종복85 ▲이종욱63
▲이해영75 ▲임숙빈79
▲임영선55 ▲임용택77
▲장순목53 ▲정진용78
▲조성근53 ▲조성수76
▲조태준87 ▲주일중84
▲차왕보59 ▲차창일70
▲최국진64 ▲최동섭75
▲최윤식69 ▲홍두미81
▲홍용우62 ▲홍정근81

◇齒科大學

▲허태운43 ▲이종복49
▲강봉기75 ▲구영86
▲권순배86 ▲권혁춘63
▲기창덕48 ▲김관식75
▲김명래73 ▲김명진77
▲김수경63 ▲김시웅86
▲김정태72 ▲김정환62
▲김창희68 ▲김태우83
▲김태일81 ▲목성규87
▲민정미85 ▲박순서79
▲박이자66 ▲박인자69
▲박종삼60 ▲박주태76
▲박태수71 ▲박희운84
▲박희철55 ▲배진척66
▲부정선81 ▲양규호70
▲원문청77 ▲유홍렬83
▲이명숙68 ▲이민구75
▲이봉재61 ▲이선형62
▲이승범81 ▲이원철69
▲이의웅65 ▲이정식55
▲이정웅75 ▲이진규84
▲이해준83 ▲전영섭66
▲정성택75 ▲조문주89
▲주영숙59 ▲주종인88
▲진성원68 ▲최영희62
▲한성협76 ▲황영무69

◇大學院

▲구자운76 ▲김광윤78
▲김우식68 ▲김진수85
▲박진규83 ▲박찬수85

▲서상혁82 ▲이은기84
▲조태승87 ▲홍경호87

◇經營大學院

▲유기흥70 ▲유수길66
▲윤계섭70 ▲이광수77
▲이병재69 ▲정남진76
▲정흥진68

◇教育大學院

▲박광희66 ▲박병룡84
▲박영배74 ▲박진길71

◇保健大學院

▲김광주72 ▲김운서74
▲김종만64 ▲박남영60
▲서광석81 ▲추호경83
▲한충현66

◇司法大學院

▲가재환70

◇新聞大學院

▲조용철68

◇行政大學院

▲권오탁77 ▲김공환68
▲염도균75 ▲이광중70
▲이규이66 ▲정동준67
▲최석환63 ▲최천근62

◇環境大學院

▲김선태88 ▲김창익87
▲양건석93 ▲윤용희85
▲이종규87 ▲이준호89
▲정영선75 ▲최강립93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7월 1일 ~ 7월 31일〉

법 인

◇삼신울스테이트생명보험(주) 張禮準(49년 商大卒)=1좌
◇조흥투자자문주식회사 朴萬玉(62년 商大卒)=1좌
◇이종재치과의원 李鍾宰(88년 齒大卒)=1좌

개 인

◇人文大學

▲김용만88 ▲유관석85
▲이강근85

◇社會科學大學

▲김경식89 ▲김윤기65
▲김형길68 ▲정동중88
▲최창식85 ▲하중오85
▲홍기두78

◇自然科學大學

▲김재훈88 ▲박일용85
▲송남웅88 ▲이재영82

◇家政大學

▲조은해80

◇看護大學

▲박정희78 ▲임숙빈73

◇經營大學

▲곽세환89 ▲문홍장78

◇工科大學

▲고유문65 ▲구영창62

▲권영일88 ▲김선우89 ▲김철환57 ▲박순규64
▲김용훈89 ▲김원식80 ▲송원일75 ▲이건희60
▲박상신89 ▲박영준86 ▲한석운58 ▲홍구희61
▲박이관62 ▲백수택85
▲양정수73 ▲염승진86
▲오상균84 ▲오의진66 ▲박병식87 ▲오해걸57
▲윤문67 ▲이상희69 ▲이무익83
▲조성연87 ▲최민호64

◇農科大學

▲고흥철61 ▲김병환57
▲김영기53 ▲김영도75
▲박주현89 ▲방석남78
▲엄승덕86 ▲이달문66
▲이익성65 ▲이종석68
▲정승원89 ▲홍석현81
▲황진한46

◇文理科大學

▲고병국50 ▲김병록70
▲김철용59 ▲명건식74
▲박남열68 ▲송태준48

◇美術大學

▲윤재준87

◇法科大學

▲강근우72 ▲김경희65
▲문종관64 ▲여운배58
▲이서65 ▲이재화58
▲이종근71 ▲임승욱75
▲조대현73

◇師範大學

▲김진만80 ▲민영문81
▲임부철86 ▲정병구59
▲정상권76 ▲조주현76

◇商科大學

◇保健大學院

▲손경애76

◇行政大學院

▲정동준67